2022 10 Vol.388
http://cafe.daum.net/ocdskr

가르멜

재속 맨발 가르멜회 한국관구
The Secular Order of Discalced Carmelites of Korea

글, 사진 : 김영문(성령의 브루노) 신부

십자가의 길

십자가, 정말 감당하기 어렵다. 가족들 안에서 겪는 문제, 아버지나 어머니의 문제이고, 아내 혹은 남편 그리고 자녀의 문제이다. 함께 살아온 형제자매들 간의 문제이다.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고 여전히 계속되는 상황은 힘들다. 미래에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십자가는 홀로 겪는 자신의 일이다. 자신의 일과 삶에 마치 장애물이 놓인 것 같고, 방해물로 가로막힌 듯하다. 과연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지, 어떤 영적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 길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다.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벗어날 길 없는 이 일에 하느님은 보이지 않고 응답이 없다.

한숨처럼 기도하고, 머물러 매달리며 하소연한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갈망과 희망이 있다는 것, 아직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인가! 십자가에서 영혼은 점점 가난해지고 초라해진다. 도저히 벗어나지도, 해결되지도 않을 것 같다.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루카 14, 33) 아직도 가진 것, 다시 가지려는 것 버려두고 또 내려놓는다!

CONTENTS

02 갤러리/ 김영문(브루노) 신부
십자가의 길
03 차례
04 총회/ 김형신(이냐시오) 신부
총회를 앞두고...
07 영성/ 신호준(마리오) 신부 옮김
레오니 마르탱: 힘겨웠던 생애(20)
12 영성/ 최호정(모세) 신부
소화 데레사의 가난에 대한 이해(1)
16 수도회 역사/ 윤주현(베네딕토) 신부
가르멜 수도회 역사(69)
20 자서전 연구/ 윤주현(베네딕토) 신부 옮김
성녀 데레사의 자서전 해설(41)
24 예수의 성녀 데레사 시/ 김석영(요셉) 수사
사랑의 대화
26 옹달샘/ 박종인(라이문도) 신부
주님의 기도(4)
27 수방에서/ 김광서(토마스) 신부
28 선교/ 서창규(알로이시오) 신부
말 한마디
30 성소/ 성소 위원회
가르멜로 74-54길
32 추모글/ 박정오(프란치스코) 신부
님따라 갈까부다
36 순례기/ 윤원조(리드비나)
18일간의 숨바꼭질(15)
40 공동체 이야기/ 서울 십자가의 성 요한
한 그루 연리지
44 가르멜뜨락/ 박계용(도미니카)
보통날
46 가르멜뜨락/ 반숙자(벨라뎃다)
차고 넘치는 비법
48 가르멜뜨락/ 안병희(젬마)
열매
48 구역모임 영적독서 자료(243)
2022년 12월 영적나눔
49 재속회 소식
50 수도회 소식
51 영상
52 그림/ 신호준(마리오) 신부
기억의 숲 너머로…
(2021년 '기억-신호준 마리오 박보규 가브리엘 2인전' 전시작품)

표지그림

"나의 하느님… 전 당신을 사랑합니다!"
(신호준 하느님 사랑의 마리오 신부 作)

발행인: 재속 맨발 가르멜회 한국관구 통권 제388 (2022 10. 1) **가르멜수도회 관구장:** 김형신 이냐시오 신부
주소: 03079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26길 8-8 (가르멜 관구 수도원 내) **전화**: 010-4460-0713
카페: http://cafe.daum.net/ocdskr
계좌: 우리 1006-101-537099, **예금주**: 재단법인 천주교가르멜수도회 관구재속회 CARMELITE ORDER

* 총회 *

총회를 앞두고 ...

김형신(예수의 이냐시오) 신부/ 가르멜 수도회 관구장

안녕하십니까? 우선 총회를 앞두고 계신 모든 회원분들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총회는 지나간 3년이라는 기간을 결산해야 하는 긴장되고 부담스러운 자리임에는 틀림없지만, 다른 한편 총회를 통해 한 회기를 위해 봉사해 주실 회장님과 새로운 참사들이 선출되는 축제의 장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수 있기에,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희망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딜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번 총회를 앞두고 계시는 모든 회원분들께 제가 공동체 사목방문 때 말씀 드렸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조금이나마 총회 준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수도회는 1회, 2회, 3회로 되어 있습니다. 1회가 가르멜 남자 수도회, 2회가 가르멜 여자 수녀회, 그리고 3회가 재속 가르멜회입니다. 이렇게 세 개로 나뉘지만, 하나의 뿌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곧 '가르멜 카리스마' 라는 동일한 뿌리에서 1회, 2회, 3회라는 가지가 생겨납니다. 동일한 뿌리에서 동일한 양분을 받고 이 가지들은 자라납니다. 한 뿌리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의미가 큽니다. "가르멜" 이라는 영적 유산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마치 한 어머니에게서 세 자녀가 태어난 것과 같습니다. 서로 성격이 다를 수 있지만 한 핏줄에서 나온 혈육의 관계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서로 삶의 방식이 다르고 표현 방식이 다르지만, 그 삶의 기초가 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르멜 카리스마를 바탕 삼아, 평신도의 삶 안에서 그 정신을 꽃피우고 표현하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독특하고도 고유한 특징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곧 재속 가르멜 회원의 정체성을 찾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데레사 카리스마의 정신을 자신의 상황에 알맞게 적용시키면서 살아가야 하고, 그것을 통해 성덕에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기도 생활입니다. 이것은 가르멜 카리스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관상적인 삶'입니다. 여러분들도 관상으로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이 관상적 삶이 가르멜 수도자들만의 전유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느님과 우정을 나누는 기도를 통해 관상으로 나아가는 삶은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성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 생활에 충실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열매를 맛보시면서 살아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 생활의 열매가 참된 열매라면, 그 결과로서 우리들 삶의 모습은 마치 성모님의 모습처럼 변화될 것입니다. 성모님께서는 항상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셨

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또한 사도들의 어머니로서 성모님께서는 주님의 뜻으로 일하는 모든 이들을 지켜주십니다. 기도 생활을 하는 이들은 성모님처럼 침묵 속에서 주님의 뜻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모님처럼 항상 주님 안에서 겸손하고자 합니다. 겸손은 나를 제대로 본다는 것의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고 나 자신을 낮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은 인내하도록 해주는 힘을 지니고 있으며,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서 하느님께 신뢰를 두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도록 해줍니다.

저는 기도 생활을 통한 참된 열매뿐만 아니라, 거짓된 열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늘 주의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작년에 저희 가르멜 남자 수도회가 로마에서 총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교황님을 알현하러 갔었을 때 교황님께서 저희들에게 강조하셨던 것이 바로 "영적 세속성"에 대한 주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영적 세속성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속화된 영성"입니다. 영성이 변질이 되어 버리면 세속화된 영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세상의 논리를 따르고, 세속에 물든 영성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거룩함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교황님께서는 이런 영적 세속성이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금씩, 아주 조금씩 우리들 삶 안으로 들어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삶을 망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습니다. 조그만 개미가 커다란 나무 기둥에 구멍을 내고 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둥 내부를 조금씩 갉아먹는 것입니다. 나무 기둥은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은 다 썩어있습니다. 조금만 충격을 가하면 그 기둥은 부서지고 무너질 것입니다. 영적 세속성도 이렇듯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파고 들어와서, 조금씩 우리 내면을 갉아먹고 썩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영적 세속성이 삶 안에서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지 살펴보면, 먼저 하느님이라는 가치를 쉽게 저버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속적인 가치들에 대해 더 눈길을 돌리게 되고, 마음을 빼앗겨버립니다. 하느님과 타협하려고 하고 '이 정도면 봐주시겠지' 라는 마음으로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희생과 보속, 고통이 주는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들을 멀리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나에게 더 편하고 좋은 것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세속화된 영성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 더 심각해집니다. 세상의 논리에 따라서 공동체 안에서도 편가르기가 생깁니다. 내 편을 만들거나 혹은 내가 선호하는 사람은 가까이하고, 내가 불편한 사람은 멀리하려는 경향, 서로 간에 편의를 봐주고 눈감아 주는 것과 같이 세속적 논리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우리는 공동체로서의 고유한 맛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물론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없을 수 없습니다. 의견의 대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분열로 이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치 서로가 원수가 된 것처럼 안 보려고 하거나, 사사건건 반대만 하거나, 서로 간의 알력이나 세력 다툼으로 번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속화된 영성은 예수님께서 강하게 비판하셨던 바리사이파나 율법학자처럼 될 수 있습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삶이 될 것이고, 나에게 잘해 주는 이에게는 잘해주고,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되는 이에게는 잘 보이려고 합니다.

재속 가르멜 회원의 정체성을 찾아가도록 해주는 요소로서 '기도 생활'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공동체 생활'입니다. 공동체

생활에 대해 소홀히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가르멜로의 부르심은 한편 공동체의 삶에로 불리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몸담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성소를 실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기도 생활이 중요하듯 공동체 생활 역시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 생활 없이 공동체 생활이 있을 수 없고, 공동체 생활이 없이 기도 생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두 생활은 서로 긴밀히 결합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들은 관상 생활에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공동체 생활 역시 관상적인 공동체 생활이어야 합니다. 기도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을 바라보고, 하느님을 향한 사랑을 드리고, 하느님과 대화하고자 끊임없이 시도를 한다면, 이러한 노력들이 공동체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 나의 시선을 맞추고, 사랑을 전하고자 해야 하고, 관심을 보이면서 대화하고자 해야 합니다. 기도 안에서 만난 하느님과의 우정의 나눔을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들에게 나누어야 하고. 기도 안에서 체험한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공동체 안에서 전파하고, 공동체를 통해서 희생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수련기 때 자주 들었던 말은 "기도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결국 공동체 생활도 잘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 드리지만, 공동체 생활은 관상적 기도 생활의 연장입니다. 공동체는 기도 생활에로의 성소를 확인하는 자리이고, 기도 생활의 결실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가르멜 공동체는 관상적 기도 생활의 연장이라 할수 있습니다.

총회를 준비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위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회는 우리 삶의 자리를 다시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성찰과 반성, 그리고 변화를 위한 결심이 세워지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그렇기에 총회의 시간 동안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청해야 합니다. 교종 프란치스코께서는 2015년 4월 14일 수요일 알현에서 다음과 같은 요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는 변화를 이끌어 내시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한 인간의 변화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변화 역시 성령께서는 이끌어 내실 수 있으십니다. 변화한다는 것 그것은 곧 새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교황님께서는 성령으로 인하여 공동체가 다시 새로 태어나기 위한 징표들 혹은 새로 태어났음을 드러내는 표지의 첫 번째로서 그 공동체가 얼마나 일치를 추구하려고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진정으로 드러내는 표시가 바로 이 하나됨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됨과 일치는 그 공동체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변화는 과거와의 이별이자 과거로부터의 탈피입니다. 그리고 역동적인 회개의 모습들입니다. 내가 변화되었다, 내가 새로운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은 항상 변화의 연속 선상에 놓여 있는 것이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려는 노력의 자세입니다. 그런 변화의 태도가 있을 때 우리는 진정 회개하여 하나가 될 수 있으며 성령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도와주시어 일치된 공동체로 거듭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의 총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총회를 잘 준비하시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총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 영성 *

레오니 마르탱: 힘겨웠던 생애(20)

마리 보댕-크르와 지음/ 메어리 프랜시스 무니 옮김(영어)
신호준(하느님 사랑의 마리오) 신부 옮김/ 인천 수도원

천국을 향한 열망

레오니는 리지외(가르멜 수녀원)의 자매들에게 보낸 많은 편지들 중 거의 대부분의 편지들에서 마지막 고향에 대한 "향수"를 언급했다. 그녀는 천국을 열망했으며,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잔인한 상실과 온갖 종류의 고통으로 가득 찬 지상에서의 귀양살이에 대해 불평했다.

바로 이것이 19세기 종교적인 분위기의 특징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곧 (그 당시) 많은 신앙인들이 유일한 행복의 원천인 "천상의 나라"를 그리워하며 한숨지었고, 지상에서의 삶을 유혹과 슬픔이 감추어진 지뢰밭과 같은 것으로 경시했다는 것이다. 폴린 역시 자신의 귀양살이의 종식과 더불어 궁극적으로 행복을 누리는 장소에 대해 탄원했다.

하지만 그러한 생명과 그처럼 멋진 세상을 창조하셨던 분은 바로 하느님이셨다. 그분께서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생명과 멋진 세상을 인류에게 제공하신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단지 지상의 삶을 경시하는 태도에 대해 비판할 수만 있을 뿐이다. 요즈음엔, 운 좋게도, 죽을 때 천국에 도달하기를 희망하는 이들은 "인생 만세!"라고 외치며 그러한 인생으로 인해 초래되는 온갖 걱정거리들과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삶을 돌아보면서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것이다. 우리에게 삶을 선사하신 분께, 자기 아버지에게 미소 짓는 한 아이의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레오니는 자신의 불평불만이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단지 1932년 10월에 있었던 피정 후에, 힘겨운 생의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깨달았다. 그녀는 폴린에게 다음과 같이 썼다. "난 내가 했던 통찰을 언니와 함께 나누고 싶어. 지금까지 난 하느님께 내 귀양살이가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끊임없이 말씀드리느라, 그분을 향한 감수성이 너무나도 부족하게 되어버린 잘못을 저질러왔어. 난 그분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려고만 해. '절 빨리 데려가주세요. 전 병이 들고 당신을 위한 고통으로 지쳐있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어! 끝이야! 정말 끝난 거지!"

그 날, 레오니는 폴린에게 자기가 다시는 절대로 지상 생활의 힘겨움에 대해 불평하지 않겠다는 점을 확신시켰다. 하지만 다음 달 그녀는 다소 변덕스럽게 다음과 같은 글을 적었다. "내가 아버지 집에 도달하기엔 너무 오래 걸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폴린에게 다음과 같이 글을 적어 보냈다. "우리가 언제 그분을 대면할 수 있을까? 난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 생각해! 우리가 언제 이 귀양살이를 떠나 우리가 사랑하는 부활하신 주님을 관상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러고 나서, 다시 한 번, 레오니는 한층 더 장엄한 나라에 대한 열망 때문에 일상의 무미건조함을 포기하고 싶어 하는 소심한 마음을 뉘우쳤다. 폴린은 레오니에게 다음과 같이 답장했다. "나 역시 이 세상을 떠나고 싶단다. 하지만 너와 같은 열성이 (나한테는) 없지, 나의 가엾은 작은 동생. 난 너한테 동정심을 느끼고 있단다! 하지만 그건 불완전하게 된다는 것과는 거리가 있지. 왜냐하면 넌 내심으로는 너 자신을 하느님 뜻에 내어맡기고 있잖니."

정말 그랬다. 레오니는 사랑하는 주님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맡겼다. 하지만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한 가지 목적을 지닌 열망에도 불구하고, 레오니는 지상을 걸으면서 (동시에) 천국을 열망하는 것을 못 견뎌했다. 그 누구도 한 순간에 성인성녀가 될 수 없다. 뿌려진 씨는 서서히 변화하고 자라는 법이다. 레오니는 세상을 떠나기에 앞서 그저 몇 달 동안에만 온갖 미련, 심지어 온갖 욕구로부터, 그리고 온갖 편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그 시기 동안 그녀는 언니동생들에게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1941년 5월에 보낸 마지막 편지들 중 한 편지 말미에 다음과 같이 적었는데, 거의 사죄하는 내용이었다. "그저 내 영혼, 아주 죄 많은 이면서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이에 관한 몇 마디 말이야. 반면에, 내가 확신하는 바는 바로 극심한 나의 비참함이지. 게다가 난 사랑하는 원장 수녀님의 사랑스러운 어머니와 같은 양팔로부터 떠나갈 때, 천국에 계신 예수님과 우리 엄마의 양팔 속으로 쉽게 떨어지고 말 거야. 얼마나 대담무쌍한 일인지!"

어떤 성인 성녀든 발전하고 진보하기 마련이다. 1897년 6월, 세상을 떠나기 세 달 전에, 데레사는 자서전에 생애 마지막 몇 달 동안 애덕을 완전히 이해하는 법을 어떻게 배웠는지 설명했다. "사랑하는 원장 수녀님, 올해 하느님께서는 애덕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은총을 제게 허락하셨어요. 전에는 정말이지 전 그저 불완전하게만 알아들었거든요."

레오니의 건강

레오니가 태어날 때부터 병약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건강이 좋지 않았다는 사실은 초기 학습에 있어서나 수도 성소에 있어서나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었다. 습진은 어린 시절 상당히 일찌감치 증상이 나타났으며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았다. 이따금 습진은 그녀의 온몸을 뒤덮었으며, 끔찍한 가려움으로 인해 괴로워했는데, 만약 (가려운 곳을) 긁었을 경우엔 증상이 악화되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레오니는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회귀성 편두통, 두피에 생긴 피부병, 잦은 장의 질병, 간헐적으로 발병하는 메스꺼움, 수녀원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제거해야만 했던 살로 파고든 발톱으로 인한 고통을 겪었다. 전반적인 피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그러한 피로가 4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악화되었던 것이다.

레오니는 가족이나, 혹은 공동체에 타격을 주었던 각종 감기와 유행성 독감을 앓았다. 종종 그녀의 질병은 기관지염이나 폐렴으로 발전되었으며, 부항, 또는 겨자로 만든 고약으로 치료받았다. 한 번은 그녀가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그러한 치료법으로 인해 난 석쇠 위에 올려진 라우렌시오 성인처럼 구워지고 말았답니다!"

1930년 12월에 전염병이 유행하던 시기 동안, 67세였던 레오니는 정말 심각하게 병이 들어 머지않아 천국에 있는 데레사를 만나게 될 거라고 믿었다. 12월 8일에 그녀는 종부 성사를 받았다.

그 당시 바이외와 리지외의 주교였던 임마누엘 수하르드는 수녀원 병실에서 지내던 레오니를 방문했다. 아네스 원장 수녀에게 보낸 편지에서, 주교는 레오니와의 만남을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전 방금 캉(수녀원)으로부터 돌아왔습니다. 그 수녀원에서 프랑소와 떼레즈 수녀님(레오니)을 축복하러 찾아갔지요. 그 결과 그 수녀님과의 대화를 통해 전 크나큰 유익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레오니는 그러한 위험스러운 질병으로부터 회복했다. 비록 영구적으로 건강이 손상되기는 했지만. 그녀는 이후 십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살면서 고통을 겪었다. 1932년에는 레오니의 건강에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오른쪽 무릎을 수술해야 했던 것이다. 5월 26일에 그녀는 마리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썼다. "난 긴 의자에 앉아 편지를 쓰고 있어… 4일 동안 병상에 있었지… 그건 내 오른쪽 무릎이야. 그 무릎이 33년 동안 여러 차례 장난을 쳤지만, 결국 완전히 작동을 멈추고 말았지. 무릎을, 바로 슬개골 쪽을 절개해야만 한다고 그랬어. 수술은 8일 전에 했지. 상처가 벌어져있고, 저절로 아물어야만 한데. 그러려면 적어도 6주는 걸릴 거야." (8월에도 여전히 상처가 충분히 아물지 않았다.) "난 앉아서 일해… 내 상태는 여전히 변함이 없지. 난 참고 견뎌야만 하는데, 왜냐하면 오래 걸리는 병이 될 것 같아서 그렇지. 무릎을 다시 절개해야 할지도 몰라. 통증은 거의 없어. 게다가 통증이 지속되지도 않고. (마리) 언니도 알다시피, 난 너무 보잘 것 없기 때문에 하느님께선 날 덩치 큰 아기 정도로 취급하시지!" 그때 이후로, 레오니의 걸음은 항상 불안정하게 되었다.

1935년 초에, 레오니는 상태가 전혀 좋지 않았다. 아네스 원장수녀는, 로마에 위치한 가르멜 수도원의 어떤 친한 친구에게 편지를 쓸 기회가 있어서, 사랑하는 레오니를 기도 중에 기억해달라고 청했다. 2월 27일에 폴린은 상당히 놀랍게도 바티칸으로부터 전보 한 통을 받았다! 그 전보는 다음과 같았다. "교황성하께서 파셀리 추기경이 서명한 작은 성녀의 전구를 통한 하느님의 위로를 청하는 아버지로서의 안부를 표명하면서, 가장 진심어린 사도적 축복을 캉 방문회 수녀원의 프랑소와 떼레즈 수녀님에게 보냅니다." 폴린은 교황의 축복을 청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더더욱 감동 받았다. 그녀는 서둘러 그 전보를 레오니에게 보내주었다.

3월 3일, 레오니는 상태가 좀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몸져 누워있는 채로 폴린에게 다음과 같이 답장을 써 보냈다. "교황성하의 축복으로 인해 난 충만한 기쁨을 누렸어.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이자 교황이신 분께서 어떻게 당신의 양떼 중의 가장 작고, 가장 비천한 이를 황송하게도 기억해주셨는지 알았을 땐, 내 두 눈에선 감미로운 눈물이 흘러나왔어. 얼마나 비할 데 없는 은총인지!!! 난 당연히 교황 성하께 감사를 표하는 것에 대해선 사랑하는 작은 어머니인 언니에게 의지하고 있어. 모든 것 중에 가장 감동적인 것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축복을 내려주셨다는 거야. 표현할 길 없이 감사한 내 마음엔, 바로 그러한 사실이 세 배의 가치가 있는 거지."

레오니는, 천국의 문턱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회복되고 있음을 알아차리고서는, 언니동생 수녀들에게 다음과 같이 장난스럽게 편지를 썼다. “바로 교황 성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지상에 계속 머물게 되었다고 확신해. 그래서 내가 언니동생들에게 간청하는데, 만약 내가 다시 병이 든다면, 정말이지 그분께 말씀드리지 말아줘!”

레오니는 류마티즘으로 인해 고통을 겪었으며, 더욱더 몸이 굽어지고 비틀거리게 되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난 끔찍하게 다리가 휘청거려!” 그녀의 발은 상당히 많이 부어올랐으며, 온몸이 뻣뻣했다. 1936년 12월 말에 언니동생 수녀들에게 새해 안부 인사를 써 보내는 편지에서, 그녀는 건강 상태에 대해 이렇게 적었다. “난 놀랄 만큼 잘 지내고 있고, 내 요통도 마찬가지야. 그 요통이 날 백 살이나 먹은 작은 노파처럼 구부정하게 만들어버렸어. 요통하고 난 둘이서 함께 행복하게 천국으로 나아가고 있지. 내가 더더욱 사랑하는 작은 언니동생들, 잘 지내고 있어?”

셀린에게 보낸 레오니의 편지에는 일종의 유쾌함이 있다. “넌 여전히 팔에 류마티즘을 앓고 있니? 난 왼쪽 발에 류마티즘을 앓고 있지만, 상관없이 뛰어다니지. 너 그 노래 알지. ‘슬픔은 전부 광기일 뿐 - 등등’ ”

다른 편지에서, 레오니는 다음과 같이 미래를 관조하고 있다. “난 내가 죽기 전에, 보기에도 끔찍한, 꼴사나운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해… 난 더욱더 쇠약해지겠지. 어떤 자세도 편하지 않을 거야.”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이가 거의 다 빠져버렸으며, 돌출한 턱은 점점 더 입술에 가까워졌다. 1936년에 레오니는 언니동생 수녀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았다. “언니동생들은 틀니에 익숙하지? 난 입 안에다 틀니를 넣고 있는 것이 정말 성가셔! 차라리 이빨이 하나도 없는 것이 훨씬, 훨씬 더 낫겠어.”

5. 성녀의 언니

점차 늘어나는 데레사의 영광

레오니의 마음속에 더욱 강하게 자리매김하던 작은 가르멜 수녀(데레사)는, 보호하거나 치유하기 위해 개입하거나, 혹은 길 잃은 이들이 다시금 하느님께 돌아오게 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대륙에서 신비스럽게 자신을 드러내 보였다. 그녀는 또한 빠르게 남성과 여성들을 수도생활로 인도했다. 어디에서나 그녀를 부르는 것처럼, 어느 곳에서든 수도자들은 자신들의 성소가 “작은 데레사 수녀” 덕분이라고 증언했다.

참으로 데레사는 천국으로부터 지상에 선을 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던 것이다. 심지어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 “전 지상으로 내려올 거예요.” 리지외 가르멜 수녀원에서는 불가사의한 현상들과 주목할 만한 은총에 대한 수많은 보고들이 있었다. 데레사가 세상을 떠난 지 겨우 몇 년 만에 그녀의 덕행에 대한 조사를 교회에 제출하는 것이 제안되었을 정도로, 그러한 보고들의 숫자는 나날이 증가했다. 레오니는 작은 여동생의 이름 위로 흐르고 있던 그러한 영광으로 말미암아 상당히 감격했다.

데레사가 세상을 떠난 지 십 년째 되는, 1907년 10월 15일에, 바이외와 리지외의 신임 주교인 르모니에르 교구장은 (리지

외) 가르멜 수녀원 수녀들에게 그들의 자매이자 동료였던 데레사에 대한 기억들을 글로 써 달라고 청했다. 이 시기 동안 매일, 리지외 가르멜 수녀원에서는 프랑스와 해외로부터 "작은 수녀"의 전구를 청하면서 그녀의 시성을 요청하는 수많은 편지를 받았다.

레오니는 그녀의 장상이 데레사의 (시복시성을 위한) 소송이 로마 법정에 제출되었다는 소식을 말해주었을 때, 아주 작은 감정만 드러냈을 뿐이다. 계속해서 공동체 세탁물을 널면서, 레오니는 다음과 같이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데레사는 다정했어요. 하지만 그녀를 시성하기 위해선 (그러한 다정함이) 별 상관없겠지요!" 그녀는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였다. "사실 그 누구도 결코 데레사를 비난할 구실이 없을 거예요!"

레오니는 데레사로부터 받았던 모든 편지 사본을 제출하도록 요청받았다. 그녀는 그 편지 중에 14통만 간직하고 있었다. 폴린은 그 (14통의) 편지사본을 받고 나서 레오니에게 다음과 같이 썼다. "넌 나한테 보물을 보내주었구나. 난 네가 그렇게 부유한지 몰랐단다."

1910년에 르모니에르 교구장은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의 소송을 위해 로마로부터 교구 소송절차를 개시할 권한을 받았다. 그는 프랑소와 떼레즈 마르탱 수녀(레오니)가 그러한 소송절차를 위한 증언을 준비해야 한다고 캉의 방문회 수녀원의 원장 수녀에게 통지했다.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소심한 레오니는, 진술을 기억을 떠올리고 적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성령께 두 배로 기도드렸다.

내적인 삶이 혼란 중에 있었던 레오니는 유순해지면서 순종하게 되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세 명의 가르멜 자매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써 보냈다. "우리 원장 수녀님은 할 수 있는 한 나한테 헌신하셨어. 난 그 수녀님의 도움에 감격해서 눈물 흘렸지. 난 그런 도움 없이는 그럭저럭 해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글쎄, 만약 내가 오로지 사랑과 겸손으로 살아가면서 온 힘을 다해 하느님을 사랑하려는 충분한 재치가 있다면, 난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겠지."

한때 "오늘만으로 충분하다"고 이야기했던, 프란치스코 드 살 성인의 훌륭한 딸인 레오니는 내일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나날이 그녀는 소송절차를 위한 증언을 준비하면서 자신을 돕고자 하시는 하느님을 신뢰했던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

* 영성의 향기 *

소화 데레사의 ‘가난’에 대한 이해 (1)

최호정(예수성심의 모세) 신부/ 남가주 수도원

◎ 진복팔단에서 언급한 “영의 가난함”

> 예수님께서는 그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행복하여라, 마음(영)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태 5,1-3)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하여 참 행복이 무엇인가를 가르침으로써,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영위해야 하는 일상의 삶의 지표를 정립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청중들 앞에 내놓은 삶의 지표는 수세기에 걸쳐 지금까지도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왔고, 절박감을 주어 왔습니다. 이 지표는 일련의 행복한 삶의 모습과 그에 따른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삶의 모습은 상식적인 것과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들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는 사람, 겸손한 사람, 의를 찾는 사람, 자비를 베푸는 사람, 순수한 사람,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 그리고 박해받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약속은 명확하고 완전합니다. 이 사람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고, 땅을 차지할 것이고, 만족할 것이며, 자비를 입을 것이고, 하느님을 볼 수 있을 것이고, 하느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며, 그리고 하늘나라를 차지할 것입니다.

첫 번째 행복선언인 “행복하여라, 마음(영)이 가난한 사람들, 그들은 하늘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특별히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앞에 놓은 “영의 가난함”은 수많은 연구와 논의 그리고 강론과 저서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이 행복선언에 부연된 “하늘 나라”의 약속은 정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에게 한 약속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두 행복선언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의 가난함과 박해를 받는 것은 매우 다른 경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같은 약속을 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스도교에서의 가난

가난이란 물질적 결핍보다는 청빈(淸貧), 소박(素朴)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성서의 개념과 윤리신학적 개념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성서에 보면 부귀, 재산은 하느님의 축복이며 인간이 희망하는 대상입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천과 함께 사회구조가 바뀌고 재화의 축적과 권력의 집중으로 사회의 불의와 부정이 생기게 되며 타인의 재산을 착취하는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자들의 시대에 오면서 사회적 가난과 서민의 물질적 결핍이 권력자나 부자들의 착취와 폭정에 의해서 생기고 이웃에 대한 무자비함이 가난의 원인으로 인식되었고 이런 현상은 하느님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

니다(아모 5,11; 이사 5,8; 미가 2,1. 6,10; 예레 5,27). 따라서 가난하고 압제받는 자는 선량한 사람들이며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던 자들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특히 바빌론 포로생활 이후에는 '가난한 이', '억압받는 이'는 축복받을 의인들을 지시하는 특수한 표현이 되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가난이 예수님의 산상수훈(마태 5,3; 루가 6,20)과 예수님 자신의 생활이나 제자들에게 요구한 생활조건입니다(마태 8,20. 10,9-10; 마르 10,21. · 28-30; 루카 9,58). 사도들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가난하게 생활했으며 부자들에게 경고하며 자선을 베풀 것을 강조하고, 가진 바를 이웃과 나누라고 가르칩니다(마태 25,35-46; 야고 1,9-11. 2,1-7). 윤리신학적으로 볼 때 성서의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선 두 가지 측면에서 가난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첫째는 사회적이고 물질적 결핍의 가난으로서 인간들이 공동으로 노력하여 극복해야 할 인간조건입니다. 즉 공동선을 추구하고 사회정의를 이룩하며 자선으로 가진 바를 나누어야 합니다. 초기교회부터 실천하여 온 자선은 신앙인 모두의 중대한 의무이며 공동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둘째로 수덕상의 가난입니다. 이는 복음삼덕(福音三德)의 하나로 스스로 선택한 가난한 생활을 의미하며 이때에는 물질적 결핍의 관점보다는 물질적 소유욕망에서의 자유와 해방을 의미합니다. 즉 스스로 취한 단순 소박한 생활모습입니다. 이러한 생활모습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의(字意)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소유권의 포기로서는 현세에서의 자유로 구원을 성취한 생활, 즉 종말론적 표지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역사를 볼 때 물질적 포기와 가난한 생활 자체를 덕으로 보고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 생활형태로 과장 선전하여 교회의 재산소유라든지 재산관리 등을 죄악시하고 단죄한 이단자들도 많았습니다. 예컨대 이원론적 사상(gnostici, manichaeism), 알비파(Albigensi), 카타리파(Cathari), 발두스파(Waldensi) 등이 그들입니다. 이와 같은 위험과 광신적 경향을 조정하기 위하여 교회는 중용을 지킬 것을 종용하고 특수한 수도생활로 가난을 실천하려 할 때 기본정신을 깨우쳐 주고 허락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신자는 누구나 복음적 가난의 의미를 깨닫고 생활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가 가르친 행복의 첫째 조건이기 때문입니다(마태 5,3; 루카 6,20).

◎ 청빈 서원

하느님 나라를 위한 청빈서원은 가난하신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따르기 위한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가난 그 자체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난하신 그리스도를 보다 철저히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수도자들의 청빈은 완덕에 이르는 하나의 수단으로써, 바로 예수그리스도의 비움(kenosis)에의 동참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적이고 외적으로 또한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으로 그리스도의 가난에 동참합니다. 그때 비로소 이 세상에 가난하신 그리스도를 올바로 증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청빈서원은 우리를 교회와 그 신비에 특별한 모양으로 결합시켜 줍니다. 복음적 권고를 서원함으로써 사랑의 열정과 완전한 하느님 예배를 가로막을 수 있는 장애에서 해방되어, 하느님 섬김에 더욱 깊이 봉헌되고 실천으로 드러나며 증진됩니다. 특히 청빈서원은 그 초점을 마음의 가난에 두어, 재물에 대한 초연함으로 이해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현존의 표징, 물질에 대한 하느님 나라 질서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청빈서원은 수도자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것은 단지 하느님께 도달하기 위한 수단이요, 하느님으로 충만해지기를 돕는 방법임을 증거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전적으로 채워야 하는 것은 하느님의 부(富)요,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하여 지향해야 할 목적 또한 하느님 자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도자는 청빈서원으로써 바로 이러한 종말론적인 사실들을 자신의 삶의 모습으로 끊임없이 드러내고 상기하게 됩니다. 특히 가난은 하늘 나라라는 보다 높은 가치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므로 청빈서원은 바로 하늘 나라를 궁극적 목표로 합니다.

소화 데레사에서 드러난 "영의 가난함"

성녀 소화 데레사는 "영의 가난함"에 대해 우리에게 아주 깊은 통찰력을 제공해 줍니다. 데레사 성녀의 글에서 영의 가난함에 대한 이해는, 그녀의 가르침에 나타나는 그녀 자신의 '작은 길', 영적인 어린시절, 겸손함과 비슷한 다른 주제들에 대한 그녀의 이해와 동일합니다. 그녀의 가르침에 나타나 있는 세 가지의 차원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그 세 차원은 **영의 가난함에 관한 이해**, **영이 가난하게 사는 법** 그리고 **주위의 세상과 가난함을 나누는 것**입니다.

1. 영의 가난함에 관한 이해

영의 가난함은 복음서 내에서 중요한 주제이며, 여러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한 단면에 국한되지 않으며, 삶의 모든 면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데레사 성녀는 영의 가난함에는 두 가지 면이 있다고 이해했으며, 바로 복음의 핵심인 두 가지 주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예수님이 나에게 은총을 주셨다"

데레사 성녀에게는 **모든 것이 선물**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짧은 그녀의 삶을 회상했을 때, 그녀는 자신의 삶, 가족, 그리고 가르멜 수도회에의 부르심 모두가 **하느님의 엄청난 사랑의 표현**이었다고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바오로 사도가 고린토 신자들에게 던졌던 다음의 질문을 매우 잘 이해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다 받은 것인데 왜 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의 것인 양 자랑합니까?" (1코린 4, 7). 그녀는 성장 시기와 또한 가르멜 수도회에서의 매일매일의 경험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은 내 것이 아니기에, 설사 빼앗긴다 하더라도 그것을 포기하는 것에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서전 제3부 1장). 그녀가 받은 영적인 축복에 관해서도 같은 원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것들도 내 것이 아니며, 하느님이 나에게 빌려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느님이 걷어간다 하더라도 나는 불평할 권한이 없습니다" (자서전 제3부 1장).**

영의 가난함과 세상을 초월함의 원리는 데레사 성녀가 살고자 하던 우선순위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런 삶이 자신이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삶이 어디에서 오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속적인 물질에 집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것에 더 집착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나에게 은총을 주었다고 난 말할 수 있다" (자서전 제3부 1장)**. 데레사 성녀의 말과 행동은 영의 가난함이란 단지 우리가 개발하는 성격이나 우리가 받아들이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며, 교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아무 열정이 없는 연기나, 목적이 없는 계획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영의 가난함을 우선으로 하는 삶을 살도록 불리워졌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우선순위를 받아들이는 것이 참으로 우리 안에 현존하셔서 활동하시는 하느님을 반영하는 것임을 깨닫도록 불림을 받았습니다. 영의 가난함은 하느님의 일하심이며,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던져진 도전은 이 하느님이 일하심을 환영하며 이 선물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2) "온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라."

영의 가난함이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단순한 말로는 데레사 성녀가 이해하는 위의 복음의 주제를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이 선물의 근본적인 성질을 우리에게 일부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화 데레사는 자신의 자서전(영혼의 이야기)에서 그녀는 첫영성체를 준비하던 때 특히 그 당시 알랑송을 방문하던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그녀에게 매우 중요하고 의미있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곳에서 살지 않았던 것이 큰 은총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장).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 곳에 있던 친구들은 너무 세속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즐거움과 하느님에 대한 봉사를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성녀 데레사는 그 당시의 삶을 회상하면서, 그녀는 **"우리가 가진 유일한 재산은 마음을 다해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가난한 마음을 갖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데레사 성녀는 영의 가난함의 핵심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느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예수님 자신의 가르침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의 보물이 있는 곳,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루카 12, 34). 영의 가난함은 우리의 정체성을 제시해주고 만들어 줍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느님에게 뿌리를 두고 있으면, 하느님에게 보물인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 우리 자신도 다른 곳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너그럽게 선물을 주십니다. 하지만, 주님의 선물이 우리 내에 영의 가난함을 키우게 하려면 우리는 하느님에게 초점을 맞추어야만 합니다. 데레사 성녀는 다음과 같이 단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선물을 주시지만, 이것은 우리를 자신에게 오게 하기 위한 목적이며, 이 목적이 달성되면, 이 외적인 선물은 사라진다." (서한 2, LT 147).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이 일을 경험하는 사람은 두려워지면서, 아무 쓸데없는 사람 같은 생각이 든다. 그것은 그들이 받기만 하고, 아무것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주님은 정확히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신다. 그것은 오로지 주님만이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동상).**

성녀의 지혜는 주님이 주신 선물을 사용할 때 항상 깨어 있도록 상기시키십니다. 이런 선물을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주님을 보다 더 느끼게 하고, 주님과 보다 더 가까운 관계를 갖게 하는 데에 쓴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물이 쓰이는 가장 고상한 봉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결과를 우리의 공로로 주장하는 잘못을 범하고, 우리의 선물은 주님의 일에 쓰여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현존과 활동이 우선임을 우리의 선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확인은 바로 영의 가난함을 반영하는 것이며 우리의 정체성이 주님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 수도회 역사 *

가르멜 수도회의 역사 (69)

윤주현(십자가의 베네딕토) 신부 / 인천 가르멜 수도원

1. 불어권 아프리카 지역

1.7. 세네갈 가르멜

세네갈은 이슬람교인이 대다수(84%)를 구성하는 나라이다. 그리스도교 신자는 6%에 불과하다. 이곳에 가르멜이 진출한 것은 카오락(Kaolak)의 주교인 은다예

벤자민 은다예 주교

(Benjamin Ndiaye) 덕분이다.

그는 자신의 교구 내에 성모님 성지와 영성 센터가 세워지길 바라며 아비뇽-아키텐 관구에 가르멜이 진출할 것을 청했다. 이에 2002년 6월 14일 아비뇽-아키텐 관구에서는 그곳에 4명의 수사들을 파견했다. 초기에 그들은 작은 집을 구해 임시로 기거하며 창립을 도모했다. 그들은 그곳 출신 성소자들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렇게 입회한 성소자들을 양성해서 세네갈에 가르멜이 뿌리내리게 했다. 그들이 했던 사도직으로는 신자들의 교육, 여러 수녀원에 다양한 도움을 주는 일, 피정 지도, 영성 생활의 증진 등이다.

1.8. 마다가스카르 가르멜

마다가스카르에 가르멜의 카리스마를 전파한 관구는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관구이다. 이 관구의 회원들은 1969년 6월 8일 이곳에 도착해서 이타오시(Itaosy)에 첫 번째 수도원을 설립했다. 그 후, 성소자들을 발굴하고 양성하면서 회원들이 증가함에 따라 안타나나리보(Antananarivo), 아리보니마노(Arivonimano), 모라망가(Moramanga)에

마다가스카르 가르멜 회원들

도 수도원들을 설립했다.

이 나라에 선교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가르멜 회원들은 순교의 아픔을 겪어야 했다. 가르멜 선교사 가운데 한 사람인 세르지오 소르곤(Sergio Sorgon) 신부가 1985년 잔인하게 살해된 것이다. 테르툴리아노가 “순교자들의 피는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의 씨앗”이라고 말한 것처럼, 세르지오 신부의 순교는 선교에서 보다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었다. 마다가스카르 출신의 많은 성소자들이 수도원의 문을 두드렸으며, 이들과 더불어 마다가스카르 가르멜은 한층 더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 마다가스카르 가르멜에는 약 80명의 그곳 출신 회원들이 살고 있다. 1999년 총평의회는 이곳을 총평의회 직속 준관구로 승격했다.

마다가스카르 수사들은 본토만이 아니라 주 섬에서 떨어진 모리스 섬과 레위니옹 섬에도 수도원을 설립했다.

2. 영어권 아프리카 지역

2.1. 말라위 가르멜

영어권 아프리카 지역 가운데 남자 가르멜이 처음으로 진출한 곳은 말라위이다. 선교사들은 1963년 12월 3일 스페인을 출발해서 12월 10일 말라위의 중심지인 릴롱궤(Lilongwe)에 도착했다. 훗날, 그들은 이곳을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하게 된다. 가톨릭 선교사들이 처음 이 나라에 들어온 것은 1889년이다. 당시 선교를 위한 첫 번째 거점에는 1902년 릴롱궤 교구가 설립되었다. 이 지명은 가르멜의 반향을 드러내는 이름인, '벨리에르'(P. Belliére)를 갖고 있기도 하다. '벨리에르'는 소화 데레사의 영적 오빠이다. 또한, 이곳에서 가르멜의 향기를 지닌 수녀회, 즉 '데레사의 자매들'이 창립되기도 했다. 이렇듯 이 지역에 첫 번째 복음화를 시도한 선교사들은 '블랑코스회'(Blancos) 신부들이었다. 우리 회 선교사들은 처음 파견되었을 당시, 그들과 협력해서 선교 활동을 했다. 그들은 1966년 카피리(Kapiri)에 첫 번째 거점을 삼고 선교 활동에 매진했다. 이어서, 그들은 이듬해인 1967년 치파소(Ciphaso)로 진출했으며, 1969년 말에는 음페레레(Mpherere)에 새로운 선교 거점을 마련하고 1982년까지 이곳에서 활동했다.

지역 교회에서는 가르멜 선교사가 기도의 집과 영성 센터를 개원해서 특히 교구 사제들과 선교하는 수도자들을 위해 봉사하길 바라는 요청이 있었다. 결국, 그들은 1982년 카르멜-카숭구(Karmel-Kasungu)에 이 계획을 실현했다. 그곳에 마련된 집은 준 은둔소 형태로, 노동과 기도의 리듬을 바탕으로 가르멜 공동체가 운영되며 그 곁에 피정집이 있어서 사제와 수도자들이 공동체의 리듬에 따라 피정을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말라위의 대다수 성직자들은 적어도 1년에 1번 이곳에서 피정을 하며 영적인 쇄신을 도모한다.

이뿐만 아니라 가르멜 선교사들은 가르멜 말라위 출신 성소자들을 발굴해서 양성하고 있다. 그리고 닝웨(Nyngwe)와 블란티레(Blantyre) 대교구에 영성의 집을 개원하기도 했다. 2003년에는 말라위에서는 처음으로 좀바(Zomba)에 가르멜 수녀원이 설립되었다. 이 창립은 나이지리아의 오웨리(Owerri) 가르멜, 케냐의 나이로비(Nairobi) 가르멜, 틴디뇨-카이모시(Tindinyo-Kaimosi) 가르멜 출신의 7명의 수녀들이 협력해서 이루어졌다.

2.2. 탄자니아 가르멜

탄자니아에는 가르멜 선교사들이 1983년에 진출해서 수도원을 설립했다. 이 선교를 주도한 것은 인도 가르멜 관구 협회였으며, 이 수도원은 총본부 직속 관할로 통치되었다. 그 후, 이 수도원의 관할권은 1991년 고아 관구로 이전되었다. 탄자니아에는 가르멜 선교사들을 위한 4개의 선교 거점이 있다. 첫 번째 수도원은 1983년 미쿠미(Mikumi)에, 그다음으로 두 번째 수도원은 1989년 모로고로(Morogoro)에 설립되

탄자니아 가르멜 수도원

었다. 모로고로는 대학 도시로, 여기에 교구의 대신학교, 소신학교를 비롯해 여러 수도회들이 연합해서 세운 대신학교, 그리고 여러 수도회의 수련소들이 있다. 가르멜 회원들은 탄자니아 출신 성소자들을 발굴해서 모로고로 수도원에서 양성을 하며 철학과 신학 공부를 하게 한다. 세 번째 거점은 1991년에 세워진 말로로(Maloro) 수도원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거점은 1993년에 세워진 이람보(Irambo) 수도원이다. 탄자니아 가르멜은 이람보에 수련소를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다.

2000년 3월 21일 탄자니아의 폴리카르포 펭고(Polycarpo Pengo) 추기경은 탄자니아 가르멜에 당시의 수도인 다르에스살람(Dar es Salam)의 음베지(Mbezi) 본당을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이곳에는 6,500명의 신자가 있으며, 초등학교도 있다. 이에 가르멜 회원들은 이곳을 인수해서 사목하며 가르멜의 카리스마를 전하고 있다. 또한, 2002년 11월 1일에는 모로고로의 칼라힐스(Kala Hills)에 가르멜 학생 수사들을 위한 학생 수도원을 설립했다. 학생 수사들은 이곳에 살며 근처의 신학교를 다니고 있다. 이 공동체의 회원들은 키로카(Kiroka) 본당을 사목하고 있다. 또한, 2003년 12월 14일 송게아(Songea)에 음판당긴도(Mpandangindo) 본당을 신설해서 사목 영역을 확장했다. 탄자니아는 인도 가르멜이 인도 국경을 넘어 처음으로 선교 활동을 펼친 지역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2002년 3월 20일 이 지역은 고아 관구 산하 지역 대리부로 승격했다. 2001년에는 인도 가르멜 수녀 연합회에서 모수마(Mosuma) 교구의 분다(Bunda)에 첫 번째 가르멜 수녀원을 설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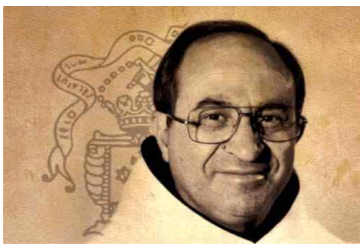
2.3. 나이지리아 가르멜

가르멜 선교사들이 나이지리아에 처음 진출한 것은 1988년의 일이다. 가르멜 수녀들은 그보다 앞서 1982년에 오웨리(Owerri)에 수녀원을 설립한 바 있다. 오웨리 가르멜의 수녀들과 에누구(Enugu)의 주교는 남자 가르멜이 나이지리아에 진출하도록 노력했다. 이들의 노력 덕분에 남자 가르멜 회원들이 진출할 수 있었다. 한편, 수도회 입장에서 나이지리아에 수도원을 창립한 것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었다. 그것은 아프리카의 영어권 지역 국가들에 진출해 있는 가르멜 회원들에 대한 양성을 목적으로 수련소를 운영하는 일이었다. 이 수도원이 바로 에누구에 설립되었다. 또한, 이곳 가르멜 회원들은 기도의 집과 피정집을 개원함으로써 영성 분야를 통해 지역 교회에 기여하고자 했다. 에누구 수도원에 이어 두 번째로 은수카(Nssukka) 수도원이 설립되었다. 이 수도원은 영성 센터이자 기도를 열망하는 이들의 오아시스와 같은 기도소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언급한 바와 같이 아프리카 대륙 내에 영어권에 속한 가르멜 관구 또는 지부들의 수련소로 운영되었다. 그간 이곳에서 적지 않은 나이지리아 출신 성소자들이 양성을 받고 서원을 했으며, 영어권에 속한 많은 가르멜 피양성자들도 양성을 받고 각 관구, 지부로 돌아갔다. 나이지리아의 수도원들은 설립 초기에 총평의회에 속해 있었지만, 공동체들이 안정되게 성장하면서 영국-아일랜드 관구로 그 관할권이 이전되었다.

2.4. 케냐 가르멜

케냐는 오래 전부터 잔지바르 술탄국에 속해 있었다. 1884년에 열린 베를린 서아프리카 회담에서 이 지역은 영국 정부에 할양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케냐의 국부로 존경받는 조모 케냐타(1889-1978)는 영국의 통치에 맞서 오랜 기간 동안 독립 전쟁을 벌여 마침내 1963년 12월 22일 케냐의 독립을 쟁취했다. 그 후, 1979-1991년까

지 수도회의 총장이던 펠리페 사인츠 데 바란다(Felipe Sáinz de Baranda) 신부는 케냐의 수도인 나이로비에 아프리카의 영어권 지역 가르멜 회원 모두에게 양성을 제공할 수 있는 거대한 학술 기관을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총평의회는 이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영어권 아프리카 지역 출신의 젊은 가르멜 회원들의 철학, 신학 양성을 위한 콜레지오를 염두에 두고 1990년 4월 14일 나이로비 수도원을 설립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 후, 후임 총장인 카밀로 막치세(Camilo Maccise) 신부는 직접 이 학생 수도원을 축성했다. 이 수도원은 국제 공동체로 3년 동안 총평의회의 직속 관할권 아래 있었다. 그리고 1995년 워싱턴 관구에게 위임했다. 이 건물의 한 부분은 피정집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수도원은 나이로비 외곽에 자리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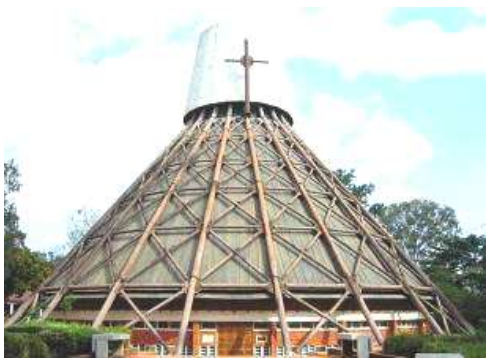


카밀로 막치세 총장 신부

2.5. 우간다 가르멜

영국인들이 이 지역을 식민지배하기 전까지 이곳에는 30개 정도의 부족들이 널리 퍼져 살고 있었다. 이 지역에 진출한 첫 번째 외국인은 아랍인들로, 이들은 1840년에 이곳에 들어왔다. 그로부터 10년 후, 유럽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으며, 영국인 존 스페케(John Speke)가 1860년에 나일강의 수원(水源)이 되는 3개의 호수를 발견했다. 옛 부간다 왕국으로 영국의 식민지배를 받았던 이 지역은 1962년 10월 9일 완전한 독립을 쟁취하게 된다. 이 나라에는 여러 선교사 그룹들을 통해 가톨릭 신앙이 전파되었다. 남부는 블랑코(Blancos) 신부들을 통해, 동부에는 밀힐(Mill Hill) 신부들을 통해, 북부에는 콤보니아노(Combonianos) 신부들을 통해 복음화가 이루어졌다. 이 나라가 복음화 되어 가는 과정에서 1885년부터 1887년 사이에 22명의 우간다 순교 성인들이 보인 신앙의 증거는 고무적이다. 순교자들 가운데 대부분은 국왕을 섬기던 청년들이었다. 그 가운데 가장 어린 순교자는 성 키치토(S. Kizito)로 순교할 당시 12살에 불과했다. 이 순교 성인들을 기념하는 성당은 캄팔라(Kampala) 외곽의 나무공고(Namugongo)에 세워졌다.

우간다에서의 가르멜의 현존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먼저 미티아나(Mityana) 가르멜 수녀원을 언급해야 한다. 이곳의 지역 교회는 이 가르멜 공동체를 교회를 떠받치는 영적인 지주처럼 여기며 수녀들의 진출을 환영했다. 반면, 남자 가르멜은 2002년 우간다의 켄제자(Kyengeza)에 진출했다. 이곳은 캘리포니아-애리조나 관구에 속한다. 켄제자는 가르멜 수녀원이 있는 미티아나 교구에 속한다.



나무공고 순교 기념 성당

(다음 호에 계속)

* 자서전 연구 *

성녀 데레사의 『자서전』 해설 (41)

토마스 알바레스 지음
윤주현(십자가의 베네딕토) 신부 옮김/ 인천 수도원

제30장 해설

3. 성녀 데레사의 내적 어두움들 (계속)

그런데도, 성녀에게 믿음은 가시지 않고 사랑과 갈망도 멈추지 않는다. 사랑과 갈망은 그 안에서부터 계속 끓어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성녀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그것은 제가 보았던 솟아나는 샘과 같은 것으로, 끊임없이 모래를 위로 향하게 움직입니다. 당연히 영혼들에 대한 이런 예 또는 비유는 거기에 이릅니다. (그 영혼 안에서) 사랑은 언제나 끓어오르며, (그는) 무엇을 할지 생각합니다"(19절).

성녀는 이런 구덩이에서 다음과 같이 해방되었다. 몇 번은 성체를 영하면서(14절), 또 다른 여러 경우에는 도가니에서(14절) 또는 어두운 밤에서 벗어난 사람과 같았다. 이내 성녀의 영혼은 평온함을 되찾았으며, 또는 한낮의 충만한 빛과 은총의 상태로 되돌아가기도 했다. 그러나 사실 성녀 데레사는 자신의 심리 생활, 심지어 자신이 맺었던 다양한 인간적·초인간적 관계에서 드러나는 흥망성쇠의 기복을 커다란 불명예나 자신의 실존적 가난에 대한 시험으로 분명히 감지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다: "제 비천함을 보는 것은 제게 얼마간의 만족을 주기 때문입니다"(15절). 이는 순수한 은총으로 인해 받았던 빛나는 신비체험의 순간들과 함께 명백한 대조를 이룬다.

하지만, 그로부터 몇 년 후인 1571년 즈음에 성녀는 부활절의 충만한 분위기에서 일어난 내적 열의가 사라진 순간들 가운데 한 시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어제는 온종일 깊은 고독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영성체 때를 제외하곤, 부활절이 제게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보고 13). 이는 「제 눈이 당신을 뵈옵고저!」(*Véante mis ojos!*)라는 노래를 들은 후 겪었던 신비적 실신(失神)이 있은 다음, 성녀의 영혼이 처한 상황이었다.

4. 30장의 메모

성녀의 『자서전』에는 공감하는 또 다른 경우들이 있을까? 물론, 가장 분명하고 잘 입증된 경우는 성녀 데레사와 알칸타라의 베드로 신부 간에 있었던 공감이었지만, 이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있었다. 공감을 유도한 당사자는 언제나 성녀 데레사였다. 성녀가 공감했던 가장 전형적인 경우들 가운데 두 경우로는 성녀가 영적 우정을 나눴던 도미니코회 소속 두 신부를 들 수 있다. 베드로 이바네스(Pedro Ibáñez) 신부와 톨레도의 가르시아(García de Toledo) 신부가 그러하다. 두 사람 가운데 첫 번째인 베드로 이바네스 신부는 초기에 거의 무관심에 가까운 냉정한 태도로 성녀의 활동 영역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그 후, 그는 성녀의 세계 속으로 깊이 들어갔다. 그는 스콜라 신학적 입장에서 신비체험의 영역으로 건너갔다. 무엇보다

도 그는 데레사가 경험했던 은총의 역사에 관심을 가졌다. 그는 실제로 자신의 탁월한 두 연구서에서 이 역사를 자세히 연구했다. 첫 번째는 분석적이고 광범위한 작품인『보고』(*Informe*)에서, 다음으로는 간결하면서도 종합적인 『견해』(*Dictamen*)에서 이를 다뤘다(가르멜 신비 도서 전집 2, 130-152). 한편, 성녀가 다음과 같이 이해하게 된 시기가 오게 된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분이 다만 당신의 학문으로 저를 안심시키고 위로해 주셨지만, (이때부터) 초자연적인 사정들에 관해 겪은 영의 체험과 함께 도와주셨으니 말입니다"(자 33, 6). 성녀는 이바네스 신부의 생애 가운데 마지막 시기와 죽음의 순간에 그 신부가 신비적 은총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보증했다(자 38, 12-13). 톨레도의 그라시아 신부의 경우에 일어난 공감의 과정도 이와 비슷했다.

제31장: 아주 사소한 자전적 사안들
사탄과 관련된 에피소드들
자신이 받은 은총들에 대한 반응
성녀 자신의 작은 것들과 '하찮은 것들'

이 새로운 장(章)은 앞 장을 마무리하기 위해 자신이 받은 수칙을 따르고 있다. "신부님께서 글이 길어지는 것은 염려하지 말고 또 아무것도 생략하지 말도록 다시 명하셨기에"(자 30, 22). 다시 말해서, 성녀는 비록 시간이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세세한 것들'을 이야기했다.

그래서 본 장은 이를 명한 사람과 대화하는 가운데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이질적인 에피소드들과 내용들을 차곡차곡 쌓았다. 본 장은 서로 잘 짜 맞춰지지 않는 두 개의 논제를 담고 있다. 즉, 성녀에게 일어난 악마와 관련된 에피소드들과 성녀 자신이 '하찮은 일들'이라고 평가하는 수덕 실천들이 그것이다. 성녀는 신비적인 은총들이 대중을 초월할 때, 이 두 주제 사이에서 그러한 은총들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전했다.

시기적으로 약간 나아가면서, 이야기는 성녀가 1562-1565년까지 살았던 성 요셉 가르멜에서 살았던 것에 대한 언급들을 포함하는 이야기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 장은 저자 자신의 내적인 삶을 위해 할애된 부분을 종결했다. 그리고 아빌라의 성 요셉 가르멜 창립을 전하기 위해 이어지는 장은 새로운 부분을 열어젖혔다. 31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발전한다.

- 1-11절: 악마적 기원을 지닌 초자연적 에피소드들
- 12-17절: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일어난 황홀경들에 대한 반응
- 18-22절:『자서전』의 독자 또는 큰 갈망을 지니고 동시에 적은 가능성을 가진 이들을 위한 실천 수칙들
- 23-35절: 성녀가 호소하는 아주 하찮은 실천들(하찮은 일들).

1. 신비가 데레사에 대한 사탄의 괴롭힘

이것은 성녀 데레사의 생애에서 드러난 악의 신비이자 사악함의 신비이다. 성녀는 신비체험을 통해서 이러한 면에도 도달했다. 성녀는 앞 장에서 심리적인 쇠약과 악마의 유혹들을 번갈아 겪은 어두운 밤에 대해 언급한 다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악마의 유혹들에 대해 전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풍부한 에피소드와 함께 독자를 놀라게 했다. 그것들은 더 이상 내적인 것이 아니라 '외적인 것'으로서, 성녀는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한다: "마귀가 영혼에게 일으킨 몇 가지 외적인 유혹과 표상 그리고 그에게 끼치는 고뇌들에 대해 다룬다. 또한, 완덕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주의할 아주 좋은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해 다룬다"(본 장의 제목).

성녀는 자신의 자전적인 집필 계획에 충

실한 가운데 이 이야기를 풀어갔다. 성녀는 현실적인 감각을 바탕으로 단순하게 이야기들을 전했다. 성녀는 이 책의 독자들 이상으로 오늘날의 독자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야기했으며, 이는 그들에게 요란스럽게 들렸을 것이다. 그러나 데레사는 악마가 실제 있다고 보았다. 즉, 성녀는 그것이 영성생활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실제적 인물로서, 자신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난입해 들어와서 극적으로 행동하는 자라고 확신한 것이다.

성녀 데레사는 자신이 살던 시대의 딸이다. 성녀는 대중적인 악마주의의 터부들과 학자들, 종교재판관들의 위(僞)신학적 염려들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다. 성녀는 거리의 사람들 사이에서 미신의 수준으로 퍼진 두려움도, 신학자들의 박학한 편견들도 공유하지 않았다. 그러나 특히 신학자들은 두려움과 어두움을 - 심지어 종교재판소에 대해 느끼던 두려움을 - 자신의 신비체험에 자주 투사한 이들이다. 그래서 성녀는 이런 면에서 대중들보다도 더 신학자들에게 맞섰다. 이미 성녀는 앞서 그들에 대항해서 이렇게 외친 바 있다: "'마귀다! 마귀다!' '하느님! 하느님!' 하면서, 마귀를 벌벌 떨게 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자 25, 22).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귀에 관한 이야기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언급한 에피소드들이 아니라 성녀가 마귀들을 대하는 내적 태도에 있다. 데레사의 경우에서 드러나는 독특함은 마귀에 대한 병적인 두려움의 분위기에서 성녀가 마귀에 대해 대놓고 '조롱할 수 있는' 능력이다. 우리는 이를 다음 구절에서 발견할 수 있다: "저는 그를 보자 비웃었습니다. 저는 두려워하지 않았으니..."(4절).

성녀는 마귀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해서 가졌던 면역성에 대해 이미 앞서 증언한 바 있으며, 여기서 그것을 다시 반복하고 있다. 앞서 성녀는 그에 대해 익살스럽게 표현하며 안심한 적이 있다: "그들에 대해선 이제 파리 이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자 25, 20). 성녀는 자신을 동반하던 신학자들이 자신에게 불어넣은 두려움들을 극복하는 가운데, 같은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저는 조금도 무섭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저를 무서워하는 것 같았습니다"(자 25, 20). "저는 주님께서 제게 베푸신 커다란 은혜 가운데 하나로 마귀에 대항한 용기를 갖고 있습니다"(자 26, 1).

바로 이 점이 성녀가 여기서 반복적으로 주장한 것이다: "저는 기도에 깊이 잠겨 있던 터라 무슨 사정인지 몰랐고 무섭지도 않았습니다"(6절). 그리고 다음과 같이 아주 분명하게 말하기도 했다: "이 저주받은 놈들은 저를 자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을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는 한, 그들은 꼼짝도 못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온갖 유혹을 말씀드리자면 주님은 많이 피곤해하실 것이고, 저 역시 지쳐 버릴 것입니다"(9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녀는 이 책의 독자이자 벗인 이바네스 신부에게 다음과 같이 좋은 조언을 해주었다: "다음의 이야기는 하느님의 참된 종에게 유익할 것이며, 두려움을 갖게 하려고 마귀가 쓰는 이러한 허수아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10절).

성녀가 이야기하기 위해 선별한 에피소드들은 두 부류에 속한다. 하나는 성녀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일어난 것들이다. 다른 하나는 벗들을 위해 자신의 기도와 연결된 것들이다. 성녀는 악귀의 현존을 신비적으로 감지했다: "저는 마귀가 무슨 형태를 갖춘 것은 드물게 보았고 형태 없이 자주 보았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시처럼 아무 형태도 없이 (마귀가) 거기에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았습니다"(10절: 성녀는 여기서 27-28장에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현시들을 암시하고 있다).

성녀 데레사가 마귀의 출몰에 직면해서 사용한 무기들은 교회 내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해오던 것들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수가 그것이다. 교회의 축복과 연결된 한에서 성수는 다음과 같다: “성수의 효과는 참으로 큰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제게 특별한 위로입니다... 교회의 말씀이 이렇게 큰 효과를 물에 주며, 축복받지 않은 물과 이렇듯 크게 다른 것을 볼 때 정말 기쁩니다”(4절). 성녀는 이처럼 마귀에 맞서는 두 가지 수단에 더해 또 다른 두 가지 수단을 덧붙였다. 하나는 기도로, 특히 중재의 경우에 기도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마귀를 업신여기는 것이다. 마귀는 우리의 두려움을 먹고 자라며 우리의 업신여김 앞에서 겁을 낸다는 확신을 갖고 마귀를 업신여기는 것이다.

예전에 성녀를 동반했던 신학자들은 성녀에게 추정적으로 사탄으로 간주된 그 존재를 손가락으로 욕하면서 거부하도록 강요했었다. 이로 인해 성녀는 강제로 그렇게 해야만 했다. 그에 대해서는 본 장에 소개된 여러 에피소드에서 더 이상 그 흔적이 남아 있지 않다. 또한, 어떠한 미신적인 수단에 대한 흔적도 없다. 성녀는 마귀의 존재와 그 행위에 대해 확신하는 가운데 단순히 이를 증언했다. 성녀는 몇몇 기회에 자신이 겪은 마귀에 대한 체험을 욥을 바탕으로 성서적인 사실과 병행해서 제시했다: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셨듯이(욥기 1, 12), 그렇게 영혼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천박한 제게는 그처럼 심하게 하진 않으셨습니다”(자 30, 10).

2.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황홀경에 대한 성녀의 복합적 심정

성녀는 즉시 『자서전』의 중간 부분(12-17장)에서 자신이 겪었던 신비체험의 파노라마에 관한 특별히 내밀한 이야기를 비롯해 사회, 심리적 차원에서 자신이 겪은 반응 가운데 드러나는 이 체험과 관련된 사안들을 독자들에게 건넸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협소한 개인적인 내밀함을 넘어서는 신비적인 은총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의 대상이기도 했다. 그것이 바로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황홀경이다.

어떤 현대 심리학자는 그런 성녀를 배우처럼 평가했으며, 성녀가 체험한 황홀경들을 세련되고 과장된 연기로 깎아내리기도 했다. 우리는 성녀 데레사가 남긴 편지들을 통해, 대형 마차가 코르도바를 지나갈 때나 부르고스로 들어갈 때를 비롯해 이와 비슷한 경우에 구경거리처럼 마차에 오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이제 여기서는 그보다 훨씬 더 미묘한 사안과 연관되어 있다. 그것은 탈혼이 일어난 몇몇 경우에 피할 수 없었던 광경을 말한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다른 사람의 반응이 아닌 성녀 자신의 몇 마디 말을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한다.

성녀가 경험한 신비체험들 가운데 어떤 것이든, 그것을 바라보는 구경꾼이 있다는 사실은, 비록 그가 아주 가까운 수녀들이라 해도, 성녀를 당황스럽게 했으며, 심지어 아주 많이 얼굴을 붉히게 했다. 성녀는 그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곤혹스러워 했다: “주님께서 제게 베푸신 이 은혜들이 사람들이 있는 데서 알려진다고 생각하면, 저는 극심한 고통을 받으며 영혼은 많이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이 점을 숙고한 끝에, 그것보다는 차라리 생매장되도록 결심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데서 저항할 수 없는 큰 거둠의 상태나 황홀경이 시작되면, 저는 아주 난처한 상태에서 아무도 저를 보지 못하도록 드러나고 싶지 않습니다”(12절).

(다음호에 계속)

* 예수의 성녀 데레사의 시와 해설 *

사랑의 대화

Coloquio de amor

김석영(예수 마리아의 요셉) 수사/ 한국 가르멜 대만 수도원

날 괴시는 사랑이
그대 괴는 내 사랑 같다면
님하 말씀 하시라 난 왜 주저하고
그대는 무엇에 서먹해 하시는지

Si el amor que me tenéis,
Dios mio, es como el que os tengo,
Decidme: ¿en qué me detengo?
O Vos, ¿enqué os detenéis?

- 영혼아 무엇을 해주련?
- 님하 그대 괴옵기만
- 제일 무서운 것은?
- 그대 잃는 것 뿐

- Alma, ¿qué quieres de mi?
- Dios mío, no más que verte.
- Y ¿qué temes más de ti?
- Lo que más temo es perderte.

주님 안에 숨은 영혼이
사랑 짜장 사랑하는 것 외에
무엇을 또 바라리까
사랑에 온통 불덩이 되어서
그대를 사랑코 또 사랑하는 것 외에

Un alma en Dios escondida
¿qué tiene que desear,
sino amar y más amar,
y en amor toda escondida
tornarte de nuevo a amar?

님하 외길 사랑을 비노니
그대만 이 맘에 모시게 하라
가장 보람진 그 자리에
아늑한 둥지를 틀게 하시라

Un amor que ocupe os pido,
Dios mio, mi alma os tenga,
para hacer un dulce nido
adonde más la convenga.

< 해설 >

데레사 성녀는 이 시를 통해서, 십자가의 성 요한이 <영적 찬가> 해설에서 언급하는 하느님과 영혼 사이의 <사랑의 동등성>에 대해서 성녀 자신의 신비적 체험을 통해 느낀 정감을 세상의 보통 연인들 사이에 흔하게 오가는 대화 형식으로 표현하며 노래한다.

십자가의 요한 성인이 가르치는 <사랑의 동등성>이란 대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 것도 원하시지 않으시며,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영혼이 드높여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녀를 당신 자신과 동등하게 만드는 것보다 그녀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하느님은 그녀의 사랑에만 기뻐하신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받는 상대방과 같아지도록 만드는 것이 사랑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영적찬가 B. 28, 1)

또 영혼의 목표는 하느님과 똑같은 사랑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는 자기가 사랑받는 만큼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느끼지 않으면 만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영적 찬가 B. 38, 3)

이 시를 번역하신 최민순 신부님께서 옛말(古語)을 많이 쓰셨기에 쉽게 풀어 쓰면 이렇다.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당신을 사랑하는 나의 사랑 같다면
님이시여, 말씀하소서 나는 왜 머뭇거리고
당신은 무엇 때문에 서운해 하시는지

- 영혼아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느냐?
- 님이시여 오직 당신을 뵈옵게 해 주소서
- 네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냐?
- 당신을 잃어버리는 것 뿐이외다

주님 안에 숨은 영혼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밖에
무엇을 더 바라리까
사랑에 타는 불덩어리가 되어서
당신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것밖에

님이시여 오로지 하나의 사랑만을 바라오니
당신만 이 마음에 모시게 하소서
가장 좋은 명당자리 거기에
포근한 우리 둥지를 틀게 하소서.

* 옹달샘 *

주님의 기도(4)

박종인(예수의 라이문도) 신부/ 인천 수도원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 사모 데레사 성녀께서는 「완덕의 길」 38장에서, "바야흐로 우리는 중대한 문제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비는 바를 깊이 생각하고 이해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완덕 38, 1)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녀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유혹에 빠지기를 허락지 마시고, 그 해독을 알려주시며, 빛과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청하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빌라 가르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 달라고 빌으신 일이야말로 그 얼마나 잘하신 일이냐고 성녀께서는 고마움과 감탄을 드러내십니다.

성녀께서는 감쪽같이 속이는 악마의 가장 큰 유혹은 우리가 덕이 없으면서도 덕이 있으며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교만의 유혹이라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준주성범」 에서처럼, 모든 이들 가운데서 내가 가장 나쁘다는 생각을 갖는 겸손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아무리 작고 사소한 죄라도, 죄라는 것을 알고 일부러 범하는 소죄를 피해야 하고, 대죄는 죽음처럼 피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랑'과 '두려움'을 간직하고 "주님께 우리의 눈길을 두는데 모든 선(善)이 있고, 주님에게서 눈을 떼는 데 모든 해(害)가 있다." 하셨습니다.

"욕망은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다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야고 1, 15)는 성경 말씀처럼 우리 사부 십자가의 요한 성인께서는 무질서한 애착(apetitos)을 벗고, 끊고, 비우라 하십니다. 진리와 계명을 거슬러 죄를 지을 때 두 가지 해(害)가 온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꾐에 넘어가 죄를 지을 때, '끼침의 해'와 '앗음의 해'가 온다는 것입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죄를 지었는데, 오히려 '고통과 번민', '피로와 야윔', '소경 됨과 더러워 짐'의 불행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사부께서는 눈알이 뽑히고 밧줄로 묶여 연자 맷돌을 돌리는 삼손의 불행을 이야기하십니다. '앗음의 해(害)'는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됨을 뜻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비참과 나약함을 인식하고, 하느님을 믿고 의탁하면서, 항상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깨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악에서 구하소서"(마태 6, 13)

"나는 이 은혜를 영원토록 감사하여야 하겠습니다. 사실 나는 이 기도(주님의 기도)에 그렇듯 위대한 신비가 깃들여 있다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기도 안에는 영혼이 걸어가는 길이 모두 다 들어 있습니다. 길의 끝인 생명수(생명수)를 푸짐하게 마실 때까지, 모두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완덕 42, 5)

수방에서

영성생활의 기초를 잘 다지기 위해서 성녀 예수의 데레사와 십자가의 성 요한 두 분 모두 자아인식에 바탕을 두고 수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자아인식은 '자신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아는 것' 입니다. 참 자아란 과거에 의해 조건 지어진 결과물로 구성되어지는 것이나 미래에 바라고픈 희망사항으로 장식하는 욕망의 투사들과 같은 에고에 의해 휘둘리거나 구애되지 않는, 하느님께서 현존하시는 영혼의 중심인 실체를 의미합니다. "영혼의 중심은 하느님"(사랑의 산 불꽃 1, 12), "영혼을 가르치시는 스승께서는 악마도 다다를 수 없고 본성적인 감각이나 지성도 다다를 수 없는 영혼 안에 실체적으로 계시기 때문이다"(어두운 밤 2권 17, 2) ; "그 이유는 지존께서 영혼 속에 실체적으로 살고 계시므로, 거기에서는 천사도 악마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해할 수도 없고, 하느님과 영혼 사이에서 일어나는 내밀하고 비밀스러운 친교를 알 수도 없기 때문이다"(어두운 밤 2권 23, 11). 십자가의 성 요한은 제시하기를, 실체는 하느님께서 현존하시는 우리 인격이며 시간과 환경적 조건을 초월하는 주체인 우리 자신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잘 안다는 것은 하느님을 깊이 만나는 것이 됩니다. 동시에 우리 자신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에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덧입고 새로운 사람, 새 아담으로 성숙되고 변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가르멜의 자아 완성은 자아인식으로 시작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살아가는 자아포기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최고의 모델은 성모 마리아이십니다. 주님 은총 안에서 더욱 정진하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김광서 (삼위일체의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 선교 *

말 한마디

서창규(어머니 마리아의 알로이시오) 신부/ 한국 가르멜 대만 수도원

이야기 1.

2년 전 타이산(泰山)에서 오골오골 모여 살던 때 일이다. 당시 아우구스티노 원장님과 요셉 수사님, 그리고 나 이렇게 세 명은 한 번씩 돌아가며 식사 준비를 했었다. 수사님들이 저마다의 장기를 발휘하여 준비한 한 끼 식사는 기름기 많은 대만 음식들 사이에서 광명과도 같았다.

중국어 공부하느라 스트레스가 많던 중에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구수한 된장찌개나 칼칼한 김치찌개를 먹을 때면 금세 기분이 좋아졌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준 수사님들에게 찬탄을 아끼지 않았다. “수사님, 정말 맛있는데요!” 라고 한마디를 하면 수사님들 입가에 슬며시 번지는 미소를 볼 수 있었다. 그리고는 두 분 수사님 모두 똑같은 대답을 하셨다. “많이 묵어! 또 해줄게!”

반대로 내가 나름 준비한 음식을 수사님들이 맛있게 드시고, “오, 맛있네!” 라고 한마디 해주시면, 나도 모르게 새어 나오는 미소를 감추지 못하고 똑같은 대답이 나왔다. “많이 드세요! 또 해드릴게요!”

이야기 2.

신주(新竹)로 이사를 온 뒤, 발품을 팔아서 알아봐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이발소였다. 타이산에 살 때 한 군데를 단골로 잡아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이발을 했다. 우리 돈으로 4,500원 정도밖에 안 하는 아주 저렴하지만, 실력은 매우 좋은 이발소였다.

‘신주에도 그런 곳이 있겠지.’ 생각을 하며 몇 군데 소개를 받아 갔지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다. 똑같은 4,500원짜리 이발소였지만, 그곳에서 이발을 하고 온 날은 형제들이 자신들은 거기에 가지 않겠다며 나를 말렸다.

다시 머리가 삐쭉빼쭉 자라나서 지나가다 봐둔 이발소에 시험 삼아 가보았다. 사람들이 많은 걸로 봐서 괜찮을 것 같은 기대가 생겼다. 과연 이발하는 자매님들이 여럿 보였다. 모두 50~60대로 보이는 자매님들이었는데 그중 한 분이 오라며 손짓하셨다.

보통 이발할 때 별말 없이 앉아있는 편인데 그 날은 자매님이 이런저런 말을 걸어오셨다. ‘어디에 사나?’, ‘발음을 들어보니 외국인 같은데 어느 나라에서 왔나?’, ‘여기서는 뭘 하느냐?’ 등등 으레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묻는 질문을 내게 하셨다. 그러다 갑자기 ‘내가 몇 살로 보이느냐?’ 하고 묻는 게 아닌가?

순간 여기서 대답을 잘 해야만 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50대인지 60대인지 분간이 잘 안 가는 상황 속에서 나이를 낮추는 김에 확 낮춰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스무 살이요.”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자매님은 매우 호탕하게 웃기만 하시며 끝끝내 부정하지는 하지 않으셨다.

놀랐던 것은 그 말 한마디에 자매님 기분이 많이 좋아지셨는지 이미 자른 곳을 또

다듬어 주시고, 머리에 하얀 분까지 칠해서 한 번 더 다듬어 주셨다는 것. 4,500원짜리 이발소에서 처음 받아본 서비스였다. 그리고 자매님은 다음에도 계속 오라면서 꼭 자신을 찾으라고 하셨다. 머리는 정말 마음에 들었지만 막상 다시 가려고 하니 부담스러워서 그 이후로는 가지 않았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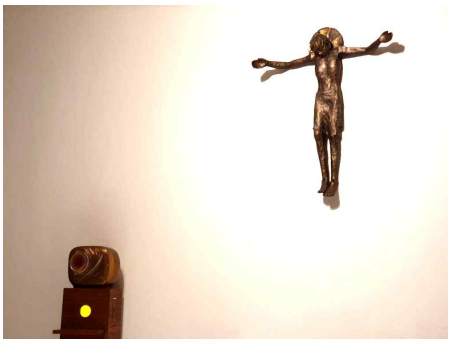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 는 속담이 있듯,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이 바로 말 한마디라는 것을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 배운다.

예수님과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 일상 안에서 마음을 예수님께로 돌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라고 한 마디 한 마디 건넬 때, 예수님께서는 바쁜 일상 속에서 당신에게 말을 건네 준 우리를 분명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실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나아가 주님의 현존에 온전히 깨어있는 것 역시 예수님께 한 마디씩 건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알아듣는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습관이 되어 매 순간 주님께 마음을 두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주님 현존에 깨어있는 삶이 되는 것이리라.

"3분이라도 하느님을 생각하지 않고 지낸 때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소화 데레사 성녀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한 마디 한 마디 사랑을 눌러 담아 예수님께 드려야겠다.*

* 성소 *



가르멜로(路) 74-54길

가르멜 남자 수도회 성소 위원회

나이 듦에 대하여…

언제였는지 날짜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그 날, 미사 중 영성체 시간이었는데, 성체가 모셔진 성합을 들고 제대 앞으로 나아가 신자들에게 성체를 분배하려고 했을 때였다. 평소에 하던 대로 성합 안의 성체를 집어 바로 앞에서 계신 신자분 손바닥 위에 놓아드리려고 했다. 그런데 왠지 그날은 성체가 제대로 손에 잡히지 않는 느낌이 들었다. 보통 엄지와 집게손가락으로 성체를 집어서 영하시는 분 눈앞에 살짝 들어 보이면서 '그리스도의 몸' 하고 말씀드리고 나서 신자분의 '아멘' 음성을 들으면서 손바닥에 놓아드리는데, 갑자기 성합 안의 성체가 제대로 안 잡히니 당황스러웠다. 기다리시는 분의 시선과 더불어 그 뒤로 길게 줄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다른 신자분들의 시선도 느껴졌다.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성체 분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날은 내가 생각해도 뭔가 더디고 굼뜬 느낌이었다. 더구나 성체가 손에 잘 안 잡히는 것을 넘어서서 두 개씩 겹쳐서 잡히기도 했다. 그럴 땐 얼른 그 옆의 다른 성체를 집어서 드리기도 했다.

그런데 문제는 생전 처음 경험했던 그런 당황스러운 일이 그 날 이후로 지금까지 미사 중 영성체 시간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행스럽게도 이제는 처음 겪었던 그 날만큼 당황스럽지는 않다. 그만큼 그런 상황이, 무뎌진 내 손이 익숙해졌기 때문인 걸까?

그렇게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서서히 몸의 이곳저곳에서 예전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지금도 여전하다. '나도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나이 듦'의 의미에 대해 돌아보게 된다. 확실히 실제로 나이가 들어봐야 비로소 나이 듦의 의미가 무엇인

지 돌아보게 되는 것 같다. 어쩌면 '나이가 든다'는 것은, 그동안 마치 내 것인 양 움켜쥐고 쌓아 두었던 것을 서서히 놓고 비우면서 영원하신 분께로 나아갈 준비를 하라는 우리 몸이 보내주는 신호라는 생각을 해본다. 어떤 면에서 '앞으로 살 날이 살아온 날보다 훨씬 적게 남았다'는 경고가 아닐까 싶다. 또한, 더불어 남은 시간 동안 하느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삶을 잘 살아내서 궁극적으로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라는 메시지로도 알아들을 수가 있겠다.

물론 '나이 듦'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는 각자가 선택할 문제이리라. '나이 듦'에 저항하면서 마지막까지도 어떻게든 안 받아들이며 살다가 행복하지 못한 죽음을 맞이하고, 심지어 남은 가족들에게까지 실망과 상처를 남겨놓고 떠날 수도 있지 않은가! 과연 '나이 듦'이라는 지극한 현실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걸까? *

성소문의:010-2140-7414
facebook: 가르멜로(Carmelo)
instagram: reumelga

* 추모글 *

님따라 갈까부다

박정오(어머니 마리아의 프란치스코) 신부님/ 광주 수도원

그리움

그때여, 춘향이는 사령이 오는지 군로가 오는지 아무런 줄 모르고, 한양으로 떠난 몽룡에 대한 그리움에 정신 가누지 못한 채, 울먹이며 노래를 하는디…얼쑤!!

갈까부다 갈까부다
님따라 갈까부다
바람도 쉬어넘고
구름도 쉬다넘는
고개라도 님따라 갈까부다

하늘의 직녀성은
은하수가 막혔어도
일년일도 보련마는
우리님 계신 곳은
무슨 물이 막혔간디
이다지도 못보는고

이몽룡을 향한 애절한 춘향이의 그리움을 노래한 판소리 춘향전의 한 대목의 가사입니다.

돌이나 벽을 긁어서 쓴 것이 '글'의 어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파생되어 우리 마음 안에 긁어서 새긴 글을 그리움이라고 한다 합니다. 인간의 삶은 마음속에 끊임없이 써가는 이러한 그리움의 연속입니다. 명절이 되면 돌아가신 가족들을 그리워하고, 가족 간에 연인 간에 떨어져 있으면 보지 못하는 아쉬움에 그리워합니다. 함께 있을 때는 싸우기도 하고 서로 서운해하면서도, 떨어져 있으면 또 서로를 그리워합니다. 때로는 현재 나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을 아쉬워하며 그것이 채워질 날을 그리워합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그리워하며 사는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목마름을 느끼며 산다는 반증입니다. 원인 모를 그 허전함과 갈증입니다.

사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반쪽입니다.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재산, 명예, 가족, 지성 등 모든 것을 갖췄다 해도 어느 날 문득 인생이 무상하다고 느끼며 괴로워하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존재적으로 불완전하여, 불안을 느끼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삶에의 무기력에 떨어집니다.

그러한 존재적 불안을 피하고자, 구멍난 듯이 느껴지는 허전함을 채우고자, 해갈되지 않는 이 갈증을 해소하고자 쉽게 눈에 보이는 돈, 명예, 쾌락과 같은 욕구들로 메꾸고자 애씁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갈증만 더 커져갑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1부 1장은 다음의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하느님을 향한 갈망은 인간의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다. 인간은 하느님을 향하여, 하느님에게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는 늘 인간을 당신께로 이끌고 계시며, 인간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진리와 행복은 오직 하느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

인간 편에서 보면 불안이고 갈증이지만, 하느님 편에서 보면 그것은, 하느님을 향하여 갈망하도록 하는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놓은 씨앗이 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하는 진리와 행복은 오직 하느님 안에서만 찾도록 하기 위함인가 봅니다.

예수의 성녀 데레사

가르멜 수도회 창립자 예수의 성녀 데레사를, '교회의 박사', '영성가들의 어머니', '기도의 성녀' 등으로 부르지만, 한 여성으로서의 데레사의 삶을 보면 풍파가 너무도 많은 처량한 여인이었습니다.

다복한 가정 안에서 가족들의 많은 사랑을 받으며 살았으며, 사람들과의 친교를 즐겨하는 그런 명랑한 아이였습니다.

성소를 얻어 수녀가 되어 살던 어느 날, 심장이 물어뜯기는 듯한 아픈 병에 걸려 삼 일간 의식을 잃고, 깨어나서도 삼 년 이상을 전신의 반이 마비가 된 채 지내야 했습니다. 이때의 충격은 데레사 삶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때를 회상하면서 성녀가 고백하기를, 죽음이 두렵고, 삶이 불안했고, 그래서 무기력하여 기도생활을 멈추기도 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역경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성차별이 심하던 당시에,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이 수녀의 몸으로 수천 킬로미터를 다니며 창립 여정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몸이 심하게 나쁜 상태로 마지막 창립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을 성녀는 명랑하게 해나갔습니다. 아빌라로 돌아오는 길에 알바 데 또르메스에 있는 수녀원에서 생애 마지막 15일을 보내게 된 때에도 그러했습니다. 침상에 누워서도 창립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수녀들과 즐겨 의논하면서 챙겼습니다.

무엇이 성녀의 이 험난한 여정들을 기꺼이 해나갈 수 있도록 하였을까요. 성녀는 자신의 삶을 회상하면서, 자신이 이러한 삶의 역경과 인간적 불안과 두려움을 기꺼이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느님을 향한 그리움과 열망이었다고 고백합니다.

1569년 즈음, 데레사는 자신의 기도서 안에 암호처럼 쓰여진 쪽지 하나를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신랑과 만날 약속의 그날'

성녀가 오랫동안 지니고 있던 이 메모의 의미는 13년 후인 1582년 생의 마지막을 보낸 알바 데 토르메스 수녀원에서 밝혀집니다.

성녀는 생애 마지막 순간에 반복하여 하늘을 향해 다음과 같이 자신의 마음을 들어올렸습니다.

하느님 자비에 의탁하며 죄인인 자신을 구해주시길 청하며 시편 50편의 일부 내용을 되풀이하여 읊었습니다.
"부서지고 꺾인 마음을 하느님, 당신께서는 업신여기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면전에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얼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런 죄인임에도, 주님께서는 자신이 교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해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침내, 주님, 저는 교회의 딸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하느님, 내 영혼

의 신랑이여, 내가 거룩한 가톨릭교회의 딸이 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약조한 상태임을 회상하듯이 분명한 말로 기도하였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신랑이여, 이제 그토록 바라던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볼 시간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주님이여. 이제 가야 할 시간입니다. 정말 축하합시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이제 유배지로부터 떠나서 내 영혼이 당신으로 하나됨을 즐거워할 그 시간이 왔습니다. 얼마나 바랬던지요”.

데레사 성녀는 이렇게 인간으로 겪게 되는 삶의 불안과 두려움, 수많은 역경들을 하느님을 향한 강렬한 그리움으로 기꺼이 극복해 나갔습니다.

아버지

40여 년을 재속 가르멜 회원으로 사신 저희 아버지께서 지난 8월 24일 하느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1940년 추운 겨울 강원도에서 태어나신 저의 아버지는 목수이셨던 할아버지를 따라서 함경도로 가서 거기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전쟁통에 친할머니 손을 잡고 남으로 피난을 오셨습니다. 휘파람과 하모니커로 우리 어머니를 꼬시는데 성공하고 슬하에 5남매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는 교회의 일에 마음을 두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평신도였던 아버지가 권위적인 교회의 분위기 안에서 봉사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신자들 안에서도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에 따라서, 평신도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교회의 일에 봉사하셨습니다. 푸른군대, 레지오,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재속 가르멜회원으로서 열심히 활동하셨습니다.

교회의 일에 봉사하는 만큼 그 반대로, 가난했던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는 아쉬움이 많았고 가족으로부터 원망도 많이 들어야 하셨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성모님 옷소매 안에 감추시고, 결코 남을 탓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항상 희망을 갖고 기쁘게 사시면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어머니에게 참 많이 고마워하셨습니다.

백발이 되시고, 어느 날 중병을 얻게 되셨습니다. 그동안 당신이 살면서 지은 모든 죄와 허물들을 아들 사제인 저에게 총고해 하시며 하느님께 내어 놓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렵게 병실에 들어가 아버지를 만나뵙게 되었고, 병자성사와 성체를 영해드리며 아버지께 드시고 싶은 것이 없는지 물어보았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성체”.

임종 직전 가족들이 병원 면회를 마지막으로 하고 돌아가고, 코로나로 인해 간병인으로 저 혼자만 아버지와 병실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눈을 뜰 기력도, 말씀을 하실 기력도 없으셨고, 고통으로 이리뒤척 저리뒤척 하셨는데, 기도를 하자고 하면 가만히 몸을 추스르셨습니다.
“아버지 묵주기도 할까요” “아버지 육시경 할게요” “아버지 구시경 하지요”

구시경 후부터 아버지 숨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가는 듯하여,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저녁기도

를 조금 일찍 같이 하시죠”.

저녁 성무일도를 거의 다 마쳐가며, ‘주님의 기도’의 마지막 구절을 하고 제가 ‘아멘’이라고 소리 내는 순간에, 아버지는 마지막 큰 한숨을 ‘후~~’하고 내쉬면서 얼굴이 잠자듯 편안해지셨습니다.

아버지 귀에 대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수고하셨어요, 하느님 품에서 평안히 쉬세요. 지상에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아버지 참 잘 사셨습니다.’

되돌아보면, 저의 아버지는 정말 가르멜을 사랑하셨고, 데레사 성녀의 모습을 따라서 사신 재속 가르멜 회원이셨습니다.

하느님 앞에 항상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시며 뉘우치셨고, 그래서 더욱더 주님 뜻을 따라서 인간적으로도 올바른 사람으로 살고자 노력하셨습니다.

또한, 공의회 정신을 따라서 평신도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교회에 봉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이며 평신도로서 감내해야 했던 모든 일들 속에서도, 죽음의 순간에조차도 ‘성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리워하며 당신 안에 모시길 열망하셨습니다.

하느님을 향한 아버지의 이 그리움과 열망이 아버지의 모든 삶을 관통하며, 삶의 시련과 역경들 속에서도, 가족들을 사랑하며 기쁘게 자신의 성소를 살아가게 하셨나 봅니다.

인간 편에서 보면 여러모로 부족한 한 가정의 아버지, 그리스도교 신자, 재속 가르멜 회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 보시기에는 흐뭇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인간 삶의 진리와 행복을 오직 하느님 안에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갈까부다 갈까부다
님따라 갈까부다
바람도 쉬어넘고
구름도 쉬다넘는
고개라도 님따라 갈까부다

* 회보 편집장님께서 요청하셨고, 저 또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의 아버지를 기억해 주시고, 또한 저희 가족을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 순례기 *

18일간의 숨바꼭질(15)

윤원조(예수마리아의 리드비나)/ 고성 가르멜산의 성모 공동체

국경을 넘었는지 핸드폰 알림 소리가 계속해서 요란하게 울려댔다. 네덜란드 에히트 마을에서 독일 쾰른 시가지까지는 2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첫날 체코를 거쳐 폴란드, 독일, 그리고 6일째 되는 오늘 오후 네덜란드 에히트 수녀원을 거쳐 다시 독일 쾰른 시내로 향하고 있다.

성녀는 1933년 42세 되던 해 10월 중순 쾰른 가르멜 수녀원에 입회를 한다. 성녀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할 처음에는, 하느님께서 성녀를 이끌어 가시는 길만 보이는 듯 했다. 지금은 그 하느님께로만 고정하고 있는 성녀의 고요하고 깊은 눈길이 느껴진다.

데레사 성녀의 책을 우연인 듯 마주치고 '이것이야말로 진리다' 라고 외칠 수 있었던 그 시점부터 세례를 받고 가르멜 수녀원에 입회하기까지 성녀는 자신을 부르고 계시는 하느님의 목소리에 계속 응답을 하면서, 아이가 엄마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자취를 찾아가듯이 걸어가고 있다.

1935년 4월 21일 부활 주일에 첫 서원식을 갖는다. 성녀는 자신이 강연했던 여성론의 그 여성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던 것이다.

"마리아는 온유함과 강인함을 겸비한 이상의 여성입니다. 성모는 십자가 아래서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가톨릭 여성들도 마리아와 교회와 함께 십자가 아래 서있어야 할 때를 맞고 있습니다."

성녀는 기도 안에서, 고통받는 세상 사람들과의 연대 관계에 있었다.

1936년 9월 14일 성 십자가 현양 축일에 성녀의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그해 크리스마스 때 어머니를 돌보고 임종까지 지켜본 언니 로사는 동생인 에디트가 있는 쾰른 수녀원으로 온 뒤 쾰른 성당에서 세례를 받게 된다. 성녀는 첫 서원 3년 후 1938년 4월 21일 종신서원을 한다.

맑고 투명한 대기 속에 고요히 잠겨있는 쾰른 시내에 도착하였다. 전화(戰火)로 수녀원이 파괴되기 전 쾰른 교외의 '린덴탈' 에 성 요셉 수녀원으로 불리고 있었던 쾰른 수녀원은, 쾰른 시내에 다시 세워지게 되었고 따라서 지금 우리가 가는 곳은 사실 성녀의 자취를 느낄 수 있는 곳은 아니다. 하지만 현재의 쾰른 수녀원에는 성녀의 많은 단상이나 글들이 보관되어 있다고 한다.

한길 가에 버스가 멈추어 서자 우리는 한낮의 햇빛 아래 하얗게 빛나는 건물을 향해 걸었다. 해가 머리 위에 있어서 그림자가 짧았다. 한길 가에서 멀지 않은 수녀원은 수녀원이라는 인상보다는 관공서 같은 느낌이 먼저 들었다. 유럽의 오래된 성당이나, 소란스러운 주변을 피해 깊은 고요 속에 자리 잡은 우리나라 가르멜 수도원이

쾰른 가르멜 수녀원 전경

나 수녀원 건물에 익숙해진 탓 같다. 수녀원 주변 주택가와 수녀원의 인적 없는 고요함이 진공 상태에 들어있는 것 같다.

우리는 수녀원 마당과 건물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육중한 철문을 밀고 들어갔다. 그때까지도 수녀원으로부터는 아무런 인기척이 들리지 않는다.

짧은 앞마당을 지나 몇 계단을 오른 후 또다시 육중한 나무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니 겨우 한두 사람 설 수 있는 공간을 남기고 장미 넝쿨 문양의 쇠창살로 성당 입구부터 막혀 있다. 우리는 누군가가 다가올 것을 기대하고 쇠창살로 막아진 곳의 좁은 통로에 모여 섰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자 서성거리던 회원들은 팔을 창살 안으로 뻗어 붉은색 천을 배경으로 모셔진 제대 위의 가르멜 성모님을 사진에 담기도 하고 가시에 찔려 피 흘리시는 예수 성심 안에 새겨진 예수님 얼굴을 사진에 담기도 하였다.

도착하자마자 성당 밖에서 바쁘게 움직이던 가이드 형제님이 성당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이곳 가르멜 수녀님들과 사전 연락이 닿지 않아 지금 수녀님들을 뵙기는 힘들 것이라는 말을 전한다. 우리는 당연히 이곳 수녀님들을 뵙고 성녀에 대한 넘치는 정보를 얻으리라는 생각뿐이었기 때문에 한동안 아무런 말도 잇지 못하였다. 퀼른 수녀원이야말로 성녀께서 입회하고 종신서원을 하신 곳이기 때문이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우리와 함께 가는 대부분의 방문지가 처음이었을 여행사에서는 여느 성지 순례와 마찬가지로 그 장소를 방문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에히트 수녀원이나 퀼른 수녀원 방문 모두 사전 수녀님들과의 연락은 안 되었던 것이다.

지도신부님과 우리는 선발대로서의 시행착오로 인한 아쉬움을 뒤로하고, 여행사의 일정에 따라야 하는 어찌해 볼 수 없는 상황을 하느님께 맡겨드렸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맘으로 몸과 맘으로 늑장을 피우며 선뜻 나서지 못하다가, 성당 뒤편 비좁게 모여 있던 그 자리에서 단체사진을 찍은 뒤 성당을 나왔다.

조금은 풀이 죽은 모습으로 수녀원 성당을 나와 계단을 내려오고 있을 그때, 마침 나이 지긋한 현지인 자매님 한 분이 성당 마당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반가운 마음에 우리 중 몇이 다가갔으나 영문을 모르는 그 자매님은 성당 마당 한쪽에 있는 피정집 문을 열고 서둘러 들어간다. 성당 마당엔 다시 우리 회원들만 남는다.

어떤 극적인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수녀원 주변을 느릿느릿 서성거리다 우리는 성당 정문 앞에서 다시 단체 사진을 찍었다. 한낮의 태양에 눈이 부시다.

수녀원에서의 일정이 없어져서 남은 시간이 길었다. 한길 가에 서서 우리는 오래 버스를 기다렸다.

그때 갑자기 불가항력적인 어떤 환시처럼 차량 통행이 드문 넓은 도로 위로 어디선가 나타난 백마 두 마리가 끄는 흰색 마차가 나무 그늘 아래 서 있는 우리 앞으로 천천히 지나간다. 우리는 모두 여름 대기 속을 두드리는 말발굽 소리를 곰곰이 되새김하듯 듣고 있었다.

버스로 30분 정도를 달려서 퀼른 대성당 근처에 도착했다. 버스에서 내려 사람들로 붐비는 도심의 도로를 일행을 좇아 바삐 걷다가 눈을 들어보니 멀리 웅장하고 진한 회색빛 거대한 성당이 나타난다.

바로 앞에 있을 것 같은 건물은 도심의 거리를 걷고 또 걸어도 쉽게 전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어릴 적 찾아 나섰던 무지개처럼 닿을 듯 닿지 않는 거리를 꽤 오랫동안 유지했다. 드디어 그 앞에 도착했을 때 놀랍고도 경이로워서 가슴이 뛰었다.

같은 도심 안에 한가함과 복잡함이 공존하고 있다. 이곳은 현지인과 관광객 그리고 각 나라에서 온 젊은이들로 발 디딜 곳도 없다. 이곳에서는 정해진 가이드 외에 성당 내부에 들어가 설명을 할 수 없는 규

정 때문에 가이드 형제님은 차 안에서 몇 가지 설명을 해주었다. 안타깝게도 가장 먼저 주의를 준 것은 소매치기와 집시를 조심하기였다. 집시, 인류가 품어 안고 가야 하는 아픈 손가락. 아픈 손가락이 내 손가락이 아닌 사람들. 우리들.

퀼른 대성당. 1248년에 지어지기 시작해서 600년 동안, 1880년까지 이어졌다. 나폴레옹의 군대가 침략했을 당시에는 프랑스 군인들이 이 성당을 마구간으로, 그리고 병원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이곳에 오는 가장 큰 이유는 동방박사 세 분의 유해가 모셔진 금관이 있기 때문이라는 가이드 형제님의 설명이 있었다. 동방박사의 유해가 어떻게 독일까지 와서 모셔져 있는지 그 과정이 궁금했다.

전설 속의 커다란 새가 제 둥지를 앞에 두고 새끼를 돌보듯이 퀼른 대성당 광장 한가운데로 모인 젊은 뮤지션들, 바닥에 색분필로 그림을 그리고 그림 끝에 모자를 두고 그림 감상 값을 요구하는 젊은이들의 무리가 그 광장에만 서너 군데 있다. 그곳을 둥지 삼아 잠시 머물러 살고 있다. 자기가 그린 그림을 카펫처럼 깔고 귀퉁이에 앉아있는 젊은이들의 검은 모자에 관람료를 넣고 그림을 감상했다. 주로 벽을 이용하는 그래피티를 바닥에 해놓은 느낌이 드는 그림, 그들의 젊은 언어에 잠시 귀 기울였다. 그들의 그림은 음악처럼 현재적이다. 광장의 다른 한편에서는 인도의 젊은이들이 음악에 맞추어 전통춤을 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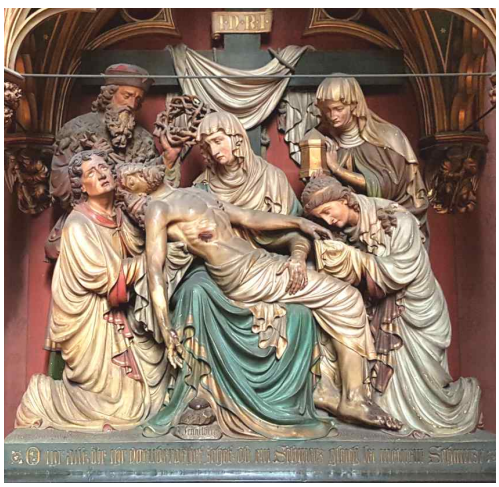
성당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건물 왼편으로 돌아서 갔다. 흑백의 사진들이 성당 건물 벽에 전시되어 있다. 지금 사진을 전시하고 있는 바로 그 부분이 폭격으로 많이 파괴되어있는 사진들이다. 자국민마저도 엄청난 고통으로 몰아넣은 전쟁의 광기는 어디에서 흘러들어와서 어디로 흘러나갔나. 유럽은 가는 곳마다 아직 풀리지 않은 덩어리로 세계대전을 가슴에 품고 살고 있는 듯하다.

성당 안에 들어서자마자 제일 먼저 눈에 띄는 황금빛 게로 십자가. 이곳 어디엔가 모셔져 있는 동방 박사의 유해와 함께, 당신의 십자가와 당신의 탄생이 함께, 게로 십자가의 황금빛으로 빛을 내고 있는 대성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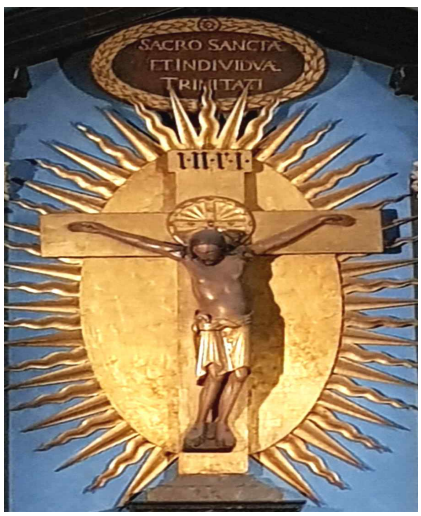
퀼른 대성당의 정식 명칭은 성 베드로와 마리아 대성당이라고 한다.

수많은 목조 성물들이 예수님의 전 생애, 그 구원의 역사를 표현하고 있는 예전의 신앙이, 현대의 신앙인에게 말을 걸고 있는 대성당.

거의 실사 크기의 정교한 14처 조각 또한 무척 사실적이었다. 십자가의 무게가 40~60kg 정도였다는 말을 들은 후로 항상



퀼른 대성당의 십자가의 길 14처 중 13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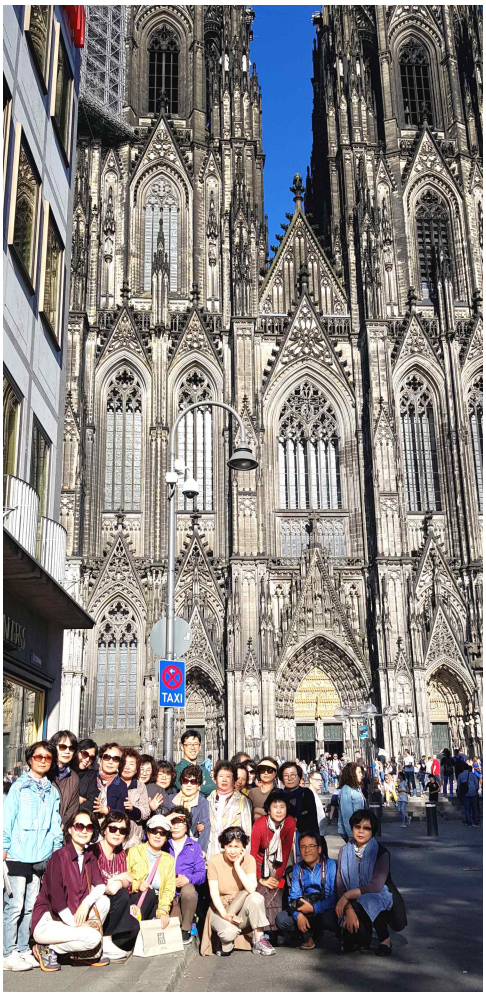
퀼른 대성당의 '게로 십자가'

14처의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는 버릇이 생겼다.

그 곳에 매달릴 사람의 무게를 감당해야 할 통나무였을 테니 메고 가야만 했던 그 나무의 무게는 현실이었다. 넘어지실 때마다 피가 흘러 눈을 못 뜨게 하였을 가시관이, 지고 가시던 그 나무에 부딪힐 때 그 나무의 무게는 커다란 폭력이 되었음을 생각한다.

대성당의 수많은 금관들 중 어떤 것이 동방박사의 것일까 가늠할 수는 없었다.

성당 앞 광장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처럼, 전설 속의 커다란 새 품에 안겨 있는 아기 새인 것처럼 그곳에서 오래 머물렀다.



쾰른 대성당 앞에서

쾰른 대성당에서 버스로 10 여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한 식당은 독일 맥주 집. 저녁겸 맥주 안주로 돼지 앞다리 찜이 나왔다. 우리나라 돼지 족발 요리와 비슷하다. 나라마다 명칭만 다를 뿐 공통적으로 많이 먹는 음식이다. 체코에서는 '꼴라뇨' 라고 하는데 독일에서는 '학센' 이라고 하는 돼지 앞다리나 넓적다리 요리라고 한다. 1950년대 독일 유학을 온 전혜린의 글을 읽어보면 그는 이런 식당에서 맥주 한두 잔을 마시면서 밤새 토론했었던 장면을 오래 그리워한다.

독일, 인문학과 철학의 구심점이 되었던 나라, 그리고 세계 대전의 복판에 있었던 나라. 그 나라의 한 가운데서 그 역사의 소용돌이 안에서 살다간 한 성인을 만나러 온 독일에서의 하루가 깊어가고 있다.

후설의 현상학을 통해 열린 사고로 현대 철학이 도달해야 할 초월자에 대한 접근을 제시한 에디트는 학문적 성과로 그리스도교 철학을 미완으로 남겨 두고 떠났다.

에디트에 대한 철학적 신학적 연구가 거듭될수록, 우리가 느끼는 아쉬움은 점점 커질 것이다. 성녀의 저작은 그리스도교 철학의 방향성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과제로 남겨졌다고 많은 이들은 평가하고 있다.

숙소에 짐을 푼 후 근처 슈퍼마켓에 가서, 하얀 색 커다란 아스파라거스와 와인 한 병을 구입했다. 몇몇 회원끼리 간단한 파티를 열었다. 아스파라거스는 전기 포트에 삶은 뒤 식혀서 먹었다. 맛있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쾰른 대성당 쪽 하늘에서 밤 불꽃놀이가 몇 분 동안 밤하늘을 밝혔다. 시대의 아픔을 함께하고, 거기에 몰려드는 사람들을 하루 종일 껴안아주는 어머니 같은 대성당에 경의를 표하는 축포처럼 여겨졌다. 길고 긴 하루였다.

(다음 호에 계속)

* 공동체 이야기 *

서울 십자가의 성 요한 공동체는 한 그루 연리지(連理枝)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우리는 월모임을 하기 위하여 종로구 부암동 가르멜 재속회관을 찾습니다. 어느 구역은 구역모임도 재속회관에서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회관 입구부터가 우리의 인내심을 저울질한답니다. 헐떡이며 숨 가쁘게 올라가는 오르막 경사도는 30도 이상은 될 듯 꽤나 가파르지요. 이렇게 어렵사리 힘들여 재속회관을 찾을 때에, 우리 서로를 애달프게 찾아 하나가 된 나무, 연리지를 생각합니다.

두 나무의 줄기나 가지가 맞닿아서 결이 서로 통한 나무. 뿌리가 서로 다른 나무의 줄기가 이어져 한 나무로 자라는 이상스러운 나무를 어쩌다가 보셨는지요. 화목한 부부나 남녀의 사이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도 쓰임새가 있지요.

연리지(連理枝) 나무

아무도 말릴 수 없다, 저들의 사랑
언제부턴가 둘이 하나가 되어
물관 체관도 하나로 흐른다

떨어진 두 몸이 하나 되기까지
서로 뼈를 내어주었으리라
서로 살을 내어주었으리라

고향 가면 마중 나온 부모님처럼
한 자리에 뿌리박고 살다 가신 할머니처럼
언제나 그 자리에서 맞아주는 나무.

(지은이: 꽃시인 이윤정)

뿌리인 부모는 각각이지만 얼마나 보고 싶고 그리웠으면 바로 옆에 있음에도 손잡아 하나가 되었을까요. 우리도 그렇게 가르멜을 찾았답니다. 혼자가기 버거운 이승길에서 주님의 눈짓과 손짓에 설레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는 참으로 축복을 받은 한 형제, 자매인 것을요. 그 따뜻한 온기는 한시와 시조에 뛰어났던 조선시대의 뛰어난 기생인 황진이가 서리서리 넣었다가 정든 님 오신 밤에 펼친 이부자리처럼 더욱 따스한 인생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잠깐 동안에 살짝 오르는 가르멜의 등반(?) 후에는 길 건너편 사방으로 사시사철 변하는 멋진 파노라마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봄철에는 활짝 핀 철쭉꽃으로, 여름은 우거진 녹음으로. 형형색색 화려한 가을의 단풍. 깊은 겨울 하이얀 눈으로 뒤덮인 모습도 장관이지만 비 그친 후 아련히 물안개 피어오르는 북악산은 스카이웨이 옆 성곽 돌담길과 더불어 굽이굽이 그 위용을 뽐내지요.

재속회관을 오르며 드는 또 하나의 생각은 이렇게 정성을 다한 후의 멋진 경치는 바로 우리 삶과 같은 맥락으로 짚어 볼 수가 있겠지요. 또한 살아가며 굽이굽이 고난을 이겨내신 예수님 수난 후의 영광도 더욱더 위대하심을 기릴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 십자가의 성 요한 재속회는 2001년 11월 16일 이명숙 성혈의 세실리아님을 초대회장으로 서울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에서 분리되어 창립되었지요. 그 후 복녀 삼위일체의 엘리사벳팀을 분리해 주고 난 후에 99명으로 시작합니다. 2011년 우리 참사단은 좀 꼼꼼하게 속지주의를 원칙대로 엄격하게 적용하였답

니다. 회원 수는 또 많이 줄게 되었고 현재는 단독회원 39명을 포함하면 90명이지요. 서울 서대문과 일산 그리고 파주, 고양 등 수도권 외곽에 주소지를 둔 회원들로 모임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총인원에 비하여 단독회원이 많은 편이지요. 그럼에도 우리 서울 십자가의 성 요한 공동체의 강점은 회장님 이하 참사단과 양성 팀, 구역장들의 올곧음과 온유함을 닮아서 작지만 크고 단단하답니다. 이렇게 모든 공동체는 알차게 뿌리를 내리며 한국사의 파란만장한 굴곡의 역사 속에서 74년 동안 견고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회관의 전신은 세검정 성당이었지요. 지금은 부암동 행복 센터에서 백양세탁소 옆 골목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우리 주차장과 출입문이 있지요. 예전의 돌계단 위 파란 대문 주택은 워낙 낡고 헐은 주택이라서 위험해서 사용은 못하고 뒤쪽으로 돌아다녔답니다. 간판이 없었다면 알아챌 수가 없었지요. 그럼에도 이 희망의 색인 파란 대문이 기점이 되었답니다. 그 후로 성당은 말끔하게 수리하였고 사제관은 거의 신축했지요. 파란 문 옆집과 자투리땅은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합니다, 이때 이곳으로 소속된 회원들은 기도도 신축금도 열정으로 합심하여 마련하였지요. 그 당시는 이 상태로도 대만족이었지만 세월이 흐르고 보니 부지가 조금 더 넓었다면 욕심껏 수방을 많이 만들어서 '연피정도 이곳에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욕심으로 남아있습니다.

하느님의 눈으로 보는 주님의 수도원. 모든 공동체에서는 **정결, 청빈, 순명**의 덕으로 살며 월모임 초청신부님의 명품 강의로 가르침을 받아 진품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며 충전된 그 열정으로 또다시 한 달을 지내지요. 공동체의 날 행사는 3년마다 전국각지의 가르멜 수도원을 방문하며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예언자들과의 대결 현장을 눈앞에 그리어 봅니다.(1**열왕,18장)** 이렇게 우리 가르멜 수도회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각인하며 양성 시절의 열정을 짚어 봅니다.

그리스도교인은 목자이신 사제들을 징검다리 삼아 하느님께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우리 가르멜인 모두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강하게 느끼고 가르멜 영성과 가르멜 성인들의 가르침과 모범에서 매력을 느끼고 가르멜 공동체 생활에서 기쁨을 느꼈기에 입회하고 서약을 하였지요.**(재속 가르멜회의 정체성과 성소식별 참조)** 요즈음처럼 영악한 세월 속에서 재속회원을 이끄시는 사제들과 함께하며 느껴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유행하는 말로 높이 받들어 우러르고 싶으니 바로 추앙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이렇게 가르멜이 있어 더 많이 행복하답니다.

경춘가도의 김유정역사 근처의 **김유정 문학촌**을 방문하여 동백꽃, 봄봄 등의 작품을 통해 근대 한국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를 만나본 적도 있지요. 재속회관 근처의 **윤동주 문학관**에서는 <별 헤는 밤>,<자화

구 재속회관 파란 대문

서울 재속 가르멜 회관(현재)

상>, <쉽게 씌어진 시> 등의 글로 한국인이 사랑하는 민족 저항 시인 윤동주의 발자취와 세상을 향한 그의 시선을 기억하고자 발걸음하며 메마르기 쉬운 삶에 활력을 실어주는 문화생활도 합니다. 또 재속회관 인근의 흥선대원군의 정자인 **석파랑**과 **백사실 계곡**(1급수 지표종인 도롱뇽 서식지)도 산책로로 이름난 곳이지요.

공동체의 날 장기자랑 행사에서는 재주꾼도 많고 미인도 많고 사랑도 많답니다. 유명 방송사에 못지않은 진행자도 몇몇이 있지요. 선종봉사를 20년 넘게 봉사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숲 해설가도, 동화 구연 지도사도 있고요. 피에타의 성모님 역은 성모님 닮은 미인이 맡아 공연하기도 했고, 오카리나 연주 또한 백미였답니다. 물론 우리가 말하는 미인은 겉보기만이 아닌 마음까지 아름다운 소유자라는 것을 눈치채셨는지요.~~~

◉선종봉사자의 당부 말씀 : 하느님과 천상가족들을 뵈려고 곱게 단장하고 돌아가는 길. 이승의 가족들은 망토와 스카풀라를 찾아 구김살 없이 다림질해 놓으시면 분홍색 장미 12송이를 관 아래에, 머리는 흰 수건으로 곱게 마무리하신답니다. 영정사진만큼 중요한 포인트지요.

소화 팀에서 분가하면서부터 우리 참사단에서는 가르멜 회원들이라면 가르멜 영성서적을 읽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 지도신부님께 건의하여 **「천주 자비의 글」**을 시작으로 읽고 나눔을 하였으니 모든 공동체의 구역모임에서도 함께 하게 되었지요.

또한 **「즐거움의 샘」**을 펴내어 수도회와 수녀회의 소식, 회원들의 기쁨과 슬픔과 공지사항을 전해 드립니다.

특히 단독회원이 되신 분들은 주님께 더 가까이하고자 애쓰십니다. 몸과 맘이 불편하고 외롭지만, 연륜만큼 덕이 높으신 어르신들입니다. 부족하지만 되도록 자주 연락드리고 방문하여 가르침을 받고 나눔을 실천하려 합니다.

또 하나, 삶의 여정에서의 위기는 기회가 되니 우리 회원들 사이에서 위기는 하느님을 찾는 기도 손이랍니다. 함께 했던 나눔, 몇 가지 사례를 적어봅니다.

첫 번째 이야기 : 한 회원의 손자가 태어나면서 그다음 날부터 오른팔에 경련이 와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한 달 동안 입원하고 통원하면서 재활치료를 받으며 증세가 없어졌지요. 일종의 혈전이 생긴 뇌경색이랍니다. 아가 엄마가 모유를 먹이는 정성도 기적을 일구는 한몫을 했을 겁니다.

우리들 모두는 부모님이 계시고 그리고 부모가 되었기에 무너진 그 마음을 잘 아실 겁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모두 주님 치유의 손길로 완치해 주시길 간곡하게 기도드렸으니 '오호, 주님이시여! 우리 아가 평생에 모든 병치레와 삶에서 오는 위험과 유혹에서도 지켜주시길 우리 모두는 간곡하게 기도드릴 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 많은 회원분들은 결혼시킨 자녀들이 우리 때와는 다르게 세파를 헤쳐 나가는 마음이 여리고 결혼에 대한 책임감이 조금은 약한 것 같다고 느끼지 않으시나요. 어느 며늘 시어머니께 문자를 보냈답니다. '남편이 요즘에 들어서 노O방을 자주 드나들며 많이 늦게 퇴근하니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다.'는 내용의 글이었다지요. 깜짝 놀란 시어머니, 처음에는 며늘의 당돌한 문자질에 가슴이 서늘했답니다. 그러나 가르멜에서 다져진 마음으로 답 글을 보냈지요. '아가야 네가 극성맞은 아이들 키우느라 힘이 부치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사회생활은 먹고 마시며 어울리고 함께하는 생활이 더 중요할

수도. 너희 아버님도 그렇고 우리 집안에 몰상식하고 무례한 일은 대대로 절대로 없었으니 꿈에도 이상한 일은 생각도 말거라. 모든 일에는 믿음으로 희망하는 **기다림의 영성**이 필요하니라.' 이 일을 계기로 위기가 기회가 되어 서로가 푸념도 하며 또 손잡고 안아주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고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 오랜 지병으로 투병하시던 어머니가 임종이 가까워 중환자실 **'환자 모니터'**가 하나씩 하나씩 꺼져갈 때에 '엄마, 예수님 놓치지 말고 옷자락 꼬옥 붙잡고 따라 가세요.' 하니 어머니께서 작지만 또렷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어엉~~~'. 하셨답니다. 온 가족이 모두 모여 있었건만 어머니 목소리를 들은 사람은 단 한 명뿐. 생전에 부족함이 많았지만 예수님께 모셔 드렸다는 자부심으로 든든하다며 눈시울을 붉힙니다.

이렇듯 좋으신 주님과 목자들과 회원님을 찾아 우리는 부암동 재속회관을 찾습니다. 한 달 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통하여 자신을 성찰하고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는 나눔도 하고 신부님의 알차고 옹골진 강의를 듣지요. 강의와 나눔은 으뜸이 됩니다. 그다음 버금가는 꽃은 식사시간이랍니다. 길 떠나는 바쁜 아침에 도시락까지 싸기에는 저희들 머리에 서리가 많이 내렸지요. 요즈음은 깔끔하고 맛있는 뷔페로 정담을 나누며 허기진 마음도 다독입니다.

어스름이 내리는 종로구 부암동 행복 센터 앞 버스정류장. 두어 명의 아낙이 갖가지 푸성귀를 작은 소쿠리에, 비닐 주머니에 담아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월 모임 후 다시 세상 밖으로 돌아가는 회원들이 옹기종기 모여 함께 정겹습니다. **'복음삼덕'**인 정결, 청빈, 순명을 가슴에 간직하고 초청 신부님 가르침을 밑거름 삼아 믿음, 희망, 사랑의 **'향주삼덕'**으로 허리에 띠 두르고 세상 밖, 아름다운 빛을 찾아 그 무리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갑니다. *

* 가르멜뜨락 *

보 통 날

박계용(예수 성심의 도미니카)
남가주 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

인디언 썸머(Indian Summer)가 무색하게 연일 폭염으로 산불이 나고 나뭇잎은 가랑잎처럼 타버린다. 겨울이 오기 전 늦가을에 한여름의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주간이 있다. 인디언들은 다시 온 짧은 여름을 맞아 겨울을 나기 위한 사냥을 하며 이 기간을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불렀다. 우린 보통 늦더위를 인디언 썸머라고 여긴다. 여린 꽃들을 그늘 아래나 집안으로 옮겨 놓으며 꽃밭 정리에 한나절이 훌쩍 지났다. 흰 옷을 모아 세탁하고 내내 벼르던 모시 적삼을 손질하여 다림질하다 보니 또 한 날이 가버렸다. 아침이면 "오늘 하루가 선물입니다." 좋은 날이길, 평안하시길, 건강하세요. 변함없이 인사를 전해오시는 다정한 분들이 계시다. 꽃향기가 다르듯 사람마다 주고받는 인사도 다양하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시간이면 보통 "굿 나잇"이 대부분이지만 "쉬세요."라는 인사로 대화를 맺는 분도 있다. 나의 답신은 "복된 날 이루시길, 안녕히 주무세요."

창가에 달님이 찾아오는 새벽녘, 서안에 모신 예수 성심 성화 앞에 작은 꽃 한 송이가 피어 있다. 주님을 향하여 인사를 드리는 듯 살짝 고개 숙인 자태가 참으로 곱다. 사철 피고 지는 새끼손톱만한 풍로초, 그처럼 사랑스러운 존재로 기쁨이기를 밝아오는 새날을 마중한다. 요즘엔 무소식이 희소식이 아니라며, 한동안 소식이 없으면 탈이 난 것이라는 벗의 전언에 아버지의 옛 편지를 떠올린다. 계절도 밤낮도 정반대인 낯선 타국에서 지구의 반을 돌아 한 달 만에 받아 본 "무소식이 희소식이라지만, 소식이 없으니 궁금하다…" 염려하시며, 한지에 정성으로 붓글씨를 써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에 아릿한 통증이 인다.

객지살이하는 자식이 고향 집을 찾듯 뜰한가운데 성모님이 기다리시는 수도원을 향하는 마음은 늘 설렘이 앞장선다. 트래픽이 없는 시간대면 묵주기도 모든 신비를 마칠 때쯤 수도원에 당도한다. 위중하시다는 소식이 연달아 들려오던 며칠, 그분들을 위해 미사 봉헌을 드려야겠다는 생각만으로 새벽부터 서둘러 도착한 수도원엔 게이트가 닫혀 있었다. 그제야 공동체 휴가로 미사가 없다는 공지를 받은 생각이 났다. 한 생각이 떠오르면 모든 것은 까마득 잊어버리는 망각의 달인인 나를 의탁 드리며, 기억은 사라져도 아직은 사고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어디로 가지?' 궁리하며 수도원에서 가장 가까운 한인 성당을 검색해 보았다. 다행히 회원 가족의 장례미사에 방문했던 가브리엘 성당이 십 분 거리에 있어 헤매지 않고 아침 미사에 참례할 수 있었다. 낯선 성당에서 '어쩐 일이냐?'며 반가워하시는 우리 회원님의 아침 초대와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며, 친교의 시간을 안배해 주신 하느님 아버지의 돌보심에 감사드리는 주님의 날이었다.

팬데믹으로 오랜 시간 중단되었던 월모임이 대면 모임을 시작하며 변한 것이 하

나 있다. 전에는 아침 성무일도를 각자 집에서 드렸기에 서둘러 바치는 경향이 있었다면 이젠 아침 시간이 한결 여유로워졌다. 수도원 성전에 모여 아침저녁 성무일도를 공동으로 바치는 월모임의 시작과 마침은 은총의 시간이다. 오랫동안 저녁 성무일도 후에 노래하던 살베 레지나를 끝기도 후에 바쳐야 한다고 어느 날부터 부르지 않는다. 지난 월모임엔 저녁 성무일도가 끝났어도 자리를 뜨는 사람이 없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시작한 '여왕이시며…' 조그만 노랫소리가 하나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 성당 안에 가득 울려퍼지니 목이 메어 눈물 고인 시야는 아련해졌다.

첫 토요 성모 신심 미사 후 하루 앞당긴 신부님 영명축일을 축하하는 조촐한 행사가 있었다. 양 공동체 많은 회원이 함께 모여 신부님의 돌쟁이 아기 모습부터 광주 수도원의 유기서원 시절까지 사진들을 영상으로 보며 기쁨을 나눴다. 서로를 알아가며 친밀함과 정이 쌓인다. 성 요셉 공동체에서 준비한 축하 연주와 축가에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신부님의 답가가 이어졌다. 코리아타운 가정집 수도원의 초창기 시절, 뽕나무 아래 양 신부님 영명축일에 불렀던 노래이기에 새삼 지난 시간을 회상하며 그리움을 마음 한편에 묻어 놓는 시간이기도 했다. 머지않은 수사님 축일을 기약하며 손에 손을 잡고 '사랑으로' 합창하며 축하의 모임은 마무리되고, 첫날부터 축일의 기쁨이 마중하는 시월의 복된 날을 기다린다.

축하식 직후 단독회원의 선종 소식에 신부님과 남아있던 몇몇 회원들이 연도를 드렸다. 아침 미사에 의식이 없으시다는 양동혁 가브리엘 신부님,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다는 언니의 병고, 데레사 님의 위독한 소식에 그저 자비하심을 청하며 봉헌드렸던 주님 전에 아버지 집으로 귀향하신 회원님의 영복을 간구 드려야 했다. 아기 예수님 안으신 어머니 뜰에서 만남도 작별도 기쁨도 슬픔도 우리는 그렇게 또 마련해 주신 하루의 이야기를 엮어 간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데레사 수녀가 주님께 여쭈었다
나는 데레사의 예수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께서 나직이 물으셨다
저는 예수님의 데레사입니다

그날도 보통만큼의
빛과 공기가 자욱하였다.

보 통 날 / 김남조

하루하루 주어진 희로애락에 순명하며, 오롯한 나를 잊음으로 보통 날의 작은 길로 가르멜 산 절정에 이르기를. 주 하느님, 오늘 몸과 마음 우리의 사언행위를 인도하시어, 사모님의 이끄심에 따라 완덕의 길을 끝까지 걸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나' 도 모르고 하늘도 목숨도 이름도 있는가 싶지 않고, 다만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만이 전부인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영혼에게 "너는 내 것만 생각하라, 나도 네 것을 생각하리라."
- 예수의 성녀 데레사 (영혼의 성 7궁방 3,2)

* 가르멜 뜨락 *

차고 넘치는 비법

반숙자(성 요셉의 벨라뎃다) / 충주 십자가의 성 요한 공동체

폭염과 폭우에 고생한 회원들이 1박 2일 쉬러 간다며 시간을 내달라 합니다. 적은 돈을 모아서 두 해에 한 번씩 외국 문학기행을 가던 사람들이 코로나로 갇혀 사노라니 이만한 일탈이라도 필요했던 것이지요. 이곳에서 60리쯤 떨어진 외진 펜션을 예약해 놓고 각자 준비물을 챙겨 떠났습니다. 나는 멸치 견과 조림을 만들고 양배추, 비트 김치를 넉넉하게 담갔지요.

따지고 보면 오랜 정인들입니다. 문학이라는 끈 하나로 모인 사람들이 갓난아기를 업고 공부하러 오고 서너 살 아기들을 달고 와서 시끌벅적한 가운데서도 수필 쓰기에 몰두했던 서른 안팎 여인들이었지요. 더러는 나이든 회원들이 있어도 구김 없이 어울렸습니다. 그것은 바라보는 곳이 한 방향이어서 가능했던 일이었지요. 하마 세월이 흘러 이제는 어엿한 작가로 지방 문단의 주춧돌들이 되었고 자녀들을 결혼시키는 나이가 되었으니 근 25년 세월을 함께했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많다지만 부침없이 함께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논에서, 밭에서, 집에서 모여온 회원들은 소풍이라도 온 양 얼굴이 환해져서 숲속 골짜기를 웃음소리로 채웁니다. 펜션 뜰에 마련된 식탁에 상차림이 시작됩니다. 고기를 사 온 사람, 논농사를 짓는 사람은 쌀을, 밭농사를 짓는 사람은 양념과 상추와 오이고추, 깻잎 그리고 자기 형편에 맞게 장아찌, 열무김치, 꾸역꾸역 나오는 보따리들이 상위에 다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와인을 준비한 사람에 과일을 준비한 사람. 이건 잔치입니다. 두 끼니를 위해서 바리바리 싸 온 마음들이 바로 때 묻지 않은 사랑입니다. 이상하게도 서로 겹치지 않은 찬도 신기했지요.

그날 우리는 소박하고도 행복한 식사를 했지요. 순 자연산에다 손맛으로 정성껏 차린 식탁은 시골에서나 맛볼 성찬입니다. 음식이 사람을 즐겁게 하고 마음을 트는 것을 가르쳐 준 시간입니다. 밤 이슥하도록 중년을 살아내는 삶의 편린들을 털어놓고 부부간의 마찰, 자식들에 대한 서운함, 부모님에 대한 죄책감, 직장에서의 갈등 등을 스스럼없이 털어냈습니다. 일상생활 안에서도 서로 의지하고 하소연하고 위로해 주며 동기간에도 못할 말을 나눠 우정이 깊다 합니다. 밤이 깊어지자 우리가 당면한 환경문제, 기후변화 등 가지가지 문제들을 공유하면서 해결책을 내기도 하고 체념을 하기도 하면서 어느 때보다 끈끈한 우정을 쌓았지요. 어떤 회원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남은 반찬을 모아 다음 식사 때 볶음밥을 해 먹는다고 하고 어떤 회원은 일회용품을 쓰지 않으려고 자기만의 컵을 가방 안에 넣고 다닌다 했습니다. 이들을 바라보면서 신앙 공동체를 돌아보았습니다.

오랜 세월을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이 서로 녹아드는 일이 쉽지 않은가 봅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누구는 상처 때문에 쉬고 싶고 누구는 섞이지 못해 외롭다 하고 누구는 정을 못 붙인다고 하소연합니다.

미사 때 평화의 인사를 반갑게 하면서 성당 문을 나서면 타인 같은 거리를 느낀다니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느님 한 분이면 족하다고 옆에 형제자매들에게 무관심한 것은 아닌지요? 젊은이들 가운데는 소속 단체가 없이 미사 참례만 하니 소외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 성당 교우가 현저히 줄어서 신부님들 걱정이 크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서울에서 고향으로 내려온 후배는 개신교 신자입니다. 목사님과 교우들이 수시로 방문하여 기도를 해주고 각별한 정을 쏟아부어 금방 어우러졌다네요. 우리는 왜 그것이 어려울까요? 오래전부터 관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지요. 상대에 대한 관심이 없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자신을 돌아보아도 그렇습니다. 아는 분하고만 어울리고 불필요한 교제는 삼가는 것, 하느님 보시기에 어떠실까요?

다시 그날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한 뼘 더 가까워진 마음으로 아침을 맞았습니다. 먼 곳으로 강의를 나가는 회원을 위하여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지은 회원부터 골고루 필요한 것들을 챙겨 보따리를 챙겨놓은 회원, 서로 더 많이 싸주려고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까지 내 눈에 비치는 그들은 온통 사랑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온 것보다 차고 넘치도록 들고 웃는 시골 아낙들이 내 눈에는 꽃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좋은 글을 쓰려면 좋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누누이 일렀던 내가 그들만치 살고 있나 돌아본 시간입니다. 어떤 횡재가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함께 먹고 나누는 마음. 나는 그날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의 이유를 알았습니다. 누가 내놓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있는 것을 내놓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기적이 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요즘 내 머릿속에는 자박자박 오는 가을 소리로 가득 찹니다. 농막에서 알이 차가는 알밤들과 빨갛게 익어가는 대추와 누렇게 익어 고개 숙이는 벼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저절로 두 손이 모아집니다. 생색 없는 헌신이 그지없이 아름다운 걸 다 늦게 깨우치며 처처에 스승을 주신 님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나이를 먹었어도 허당인 내게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시듯 스승을 주십니다. 스승을 알아보게 해주신 성령님께 감사를 드리는 나날입니다.*

* 가르멜 뜨락 *

열 매

안병희(아기예수의 젬마)
서울 성 요셉 공동체

황금 들녘
고추잠자리가 파란 하늘을 돌다
살포시 벼 이삭 위에 내려앉는다.

옥수수는 내년을 위하여
씨앗을 옹골차게 내어주고
구십일 배추는 무 옆에서
꽃보다 귀하게 자랐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연보라 코스모스 핀 들녘에
곡식과 푸성귀들은 제 몫을 다하고
바랭이와 능쟁이도 함께 자랐다.

하늘이 손에 잡힐 듯 가까운 첩첩산중에
단풍나무잎은 더 붉고 가벼워져
반백의 나를 어린 나로 이끌어
시간을 잊어버리고 살게 한다

고요한 계절의 나침반 속에
날 내려놓고
새소리 물소리 들으며
열매 맺지 못한 나의 우매함을
바랭이와 함께
아궁이에 불을 지핀다.

* 구역모임 영적독서 자료(243) *

2022년 12월구역모임
"총장님 서한"에 관한 영적나눔 안내

먼저 각자가 집에서 9월 회보에 실린 총장님 서한을 정독합니다. (구역 모임때 다같이 함께 읽어도 괜찮습니다.)

1. 서한의 내용 중에 마음에 와 닿았고 공감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2. 서한의 내용 중에 현재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디였습니까?

3. 만일 2번의 대답에서 공동체의 부정적인 모습을 대답했다면, 우리는 공동체 변화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4. 총장님께서 재속회 공동체에 대하여 염려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5. 이 서한을 읽고 나누고 싶으신 소감 (자유롭게)

* 11월 회보부터는 "소화 데레사 성녀의 덕행과 영성"을 주제로 구역 모임 자료가 실릴 예정입니다....

재속회 소식

+ 영원한 안식을 빕니다

* 지경자 성모성심의 데레사
. 선종일: 2022년 9월 3일(향년 79세)
. 남가주 성 요셉 공동체

* 박기성 성 요셉의 시몬
. 선종일: 2022년 8월 24일(향년 82세)
. 서울 예수성심의 성녀 데레사 마르가리타 공동체

* 구재순 성모성심의 수산나
. 선종일: 2022년 8월 23일(향년 87세)
. 수원 십자가의 성녀 데레사 베네딕타 공동체

* 김자선 아기예수 데레사의 엘리사벳
. 선종일: 2022년 8월 22일(향년 97세)
. 서울 성 시몬스톡 공동체

* 이남숙 성모성심의 요세피나
. 선종일: 2022년 8월 21일(향년 88세)
. 부산 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

* 박원순 성모영보의 안나
. 선종일: 2022년 8월 17일(향년 91세)
. 인천 십자가의 성 요한 공동체

* 방미라 예수성심의 소피아
. 선종일: 2022년 9월 19일(65세)
. 서울 성 알베르토 공동체

은경축

* 인천 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

. 날짜: 2022년 8월 14일
. 회원: 이옥희 예수성심의 세라피나
유옥수 예수성심의 비리바

* 서울 성 요셉 공동체

. 날짜: 2022년 9월 11일
. 회원: 김영진 십자가의 아오스딩

* 서울 성 엘리야 공동체

. 날짜: 2022년 9월 14일
. 회원: 이인숙 가르멜의 데레사

수도회 소식

가르멜 영성 특강 안내

· 장소: 명동 가톨릭회관 **7층 강당**(회관 사정으로 인해 10월만 7층 강당에서 합니다.)
· 일시: 10월 14일(가르멜 영성과 영성생활 7) / 11월 11일(가르멜 영성과 영성생활 8)
· 강사: 박종인 라이문도 신부
· 시간: 강연 13:40 / 미사 15:30 (12시 40분부터 입실 가능)
·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는 무료 강연입니다.

가르멜수도회 젊은이 피정 프로그램 안내

	장소	일시	대상
서울 청년피정	가르멜 영성문화센터 3층 경당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2:00-3:30	20-40세 청년 (기혼/미혼 무관, 신자/비신자 무관)
광주 젊은이 피정	가르멜 광주 수도원	매월 첫째 토-일	고등학생 이상(남자)

*** 문의: 010-2140-7414**

가르멜수도회 상설고해소

일시: 매월 첫째, 셋째 화요일(10/4, 10/18) 오후 2-6시
장소: 가르멜 영성문화센터

성시간

. 2022년 10월 29일(서 마리아 꼴베 신부 지도)
. 매월 마지막 주(토) 오후 3시~ 4시 30분
. 가르멜 영성문화센터 대성당
(오후 2시 30분 개방)
. 영성강좌, 성시간, 미사

첫토요 신심미사

. 가르멜 영성문화센터 대성당
. 매월 첫 토요일 10시 3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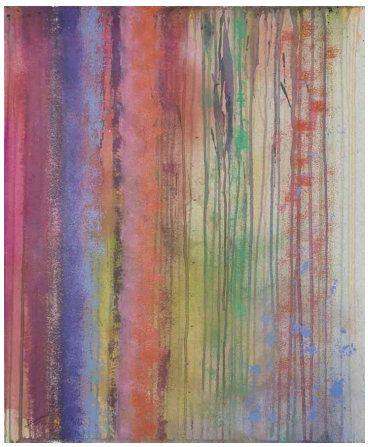
맨발 가르멜 수도회 성 요셉 한국관구
(예금주: 재단법인 천주교 가르멜 수도회)

미사신청: 우리 1005-402-642675,
* 미사지향은 문자 바람
(010-6305-5088 권영상 클레멘스 신부)

가르멜 수도회 후원회:우리 1005-203-133071
농협 301- 0162-097461
중국선교 후원회:우리 1005-502-535564
성소 후원회:우리 1005-302-535558

홈페이지: http:// www.carmel.kr
유튜브: 가르멜 수도회 영성센터
앱: 가르멜 수도회 성 요셉 한국관구

"우리가 하느님을 알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분을 알게 되지 못할 것입니다.“
- 영혼의 성 1궁 2,9 -
(사진: 이우주 예레미아 신부)



기억의 숲 너머로…

“ 하느님을 소유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하느님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이지요.”

- 예수의 성녀 데레사-